

# 南北對話 評價와 展望

1993. 2.



# 目 次

## I. 92年度 南北對話 評價와 93年度 展望

(金泰瑞：咸南 知事) ..... 1

## II. 金日成 新年辭를 통해 본 93年 南北對話 展望 및 對處方案

(丁世鉉：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43

## III. 金正日 論文을 中心으로 본 北韓의 政治路線과 南北關係

(梁好民：翰林大 教授) ..... 57



# I. 92年度 南北對話 評價와 93年度 展望

金 泰 瑞 (咸南 知事)

## 1. 92年度 南北對話 評價

- 가. 高位級會談의 本格化 및 各級 合意書 採擇
- 나. 合意書에 대한 北韓의 態度와 雙方間의 爭點 分析
- 다. 92年 南北對話에 대한 北韓의 評價
- 라. 成果와 問題點 檢討

## 2. 92年度 情勢展望 및 北韓의 豫想策動

- 가. 北韓情勢 展望
- 나. 周邊國의 「韓半島 問題」關聯 政策 展望
- 다. 豫想되는 北韓의 對外, 對南 策略
- 라. 豫想되는 北韓의 對話戰略

## 3. 우리의 對策

- 가. 短·中期 對策 方向
- 나. 93年度 對北 戰略



# 1. 92年度 南北對話 評價

## 가. 高位級會談의 本格化 및 各級 合意書 採擇

- 90.9 1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基本合意書 于先 採擇 및 이를 바탕으로 한 政治, 軍事, 交流·協力問題의 均衡的 推進 對「3個 緊急課題」(單一議席 UN加入, T/S 訓練 中止, 訪北拘束者 釋放) 및 政治, 軍事問題의 先決主張이 맞선이래 91.12 5次 高位級會談에서 南北合意書가 타결될 때까지는 雙方間에 각기의 立場을 表現만 달리해가면서 論爭을 계속해왔는 바
- 그간 3차례 本會談과 5차례의 實務代表 接觸을 한 結果 核問題 協議를 위한 別途의 代表接觸 및 高位級會談分科委 構成·運營 合意書案을 採擇키로 하는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 協力에 관한 合意書」의 署名에 이르렀으며
- 이같은 5次高位級會談을 고비로 會談은 本格化하여 6次會談 (92.2, 平壤)에서 「基本合意書」, 「韓半島非核化 共同宣言」, 「3個 分科委構成·運營合意書」 등을 正式 發效시키는 한편 6차례의 代表接觸을 통해 核統制 共同委 構成·運營에 合意(3.19)했음
- 그리고 7次 高位級會談(92.5, 서울)에서 南北 連絡事務所, 軍事 共同委, 經濟交流 協力共同委, 社會文化 交流協力共同委 등의 5.18 發足과 各分科委別 單一 附屬合意書 作成 및 和解共同委 構成, 그리고 離散家族 老父母 訪問團 및 藝術團 交換에 合意했으며

- 이에 따라 92.9의 8次會談에서 南北交流·協力, 南北不可侵, 南北和解 등에 관한 3個 附屬合意書를 公式 發效시키기로 했음
- 그러나 北韓은 IAEA의 査察을 受容(92.5)하면서도 南北 相互 核査察에 不應하는 한편 「이인모」問題를 걸어 老父母 訪問團 交換을 拒否할 뿐만 아니라 南韓朝鮮勞動黨 間諜團事件(92.10.6 發表)을 南韓의 自作劇 및 對話逆行 態度로 捏造非難하는 가운데 韓·美 兩國의 '93 T/S 訓練 再開問題를 트집잡아 92.11.5부터 進行될 和解共同委를 비롯한 4個 共同委 1次會議를 拒否하므로써 對話 中斷危機 局面을 造成하면서 다만 核統制 共同委만 일단 維持한 채 T/S 訓練 中止 保障獲得에 注力하고 있음

## 나. 合意書에 대한 北韓의 態度와 雙方間の 爭點 分析

### (1) 基本合意書에 대한 北韓態度

基本合意書에 我側主張이 훨씬 많이 포함되었으나, 合意書의 前文과 一部 構成에서의 未備點으로 인해 北側은 그들 나름의 論據에 의해 「和解」는 주로 拘束者 釋放, 國家保安法 撤廢, 不可侵은 軍縮과 美軍撤收, 「交流·協力」은 「和解」와 더불어 最小限의 南北合作 및 北韓開放趨勢 抑制를 겨냥하는 등으로 韓半島問題의 民族內部化와 對南統一戰線策動을 強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合意書 採擇以後의 北韓 論調 및 6次 高位級會談後 各分科委員會 北韓發言등 綜合分析結果)



## (2) 非核化 共同宣言에 대한 北韓態度

同宣言도 우리주장을 基本으로 하고는 있으나 我側이 이미 核燃料 再處理 및 核濃縮施設의 不保有(91.11.8)와 核不在宣言(91.12.18)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北韓의 조치를 促求하는 環境에서 「雙方이 合意하는 對象들에…査察…」을 明示했기 때문에 北韓으로서는 그들이 필요한 遲延戰術에 活用할 수 있다는 態度를 堅持하는 것임(92.11까지의 4次에 걸친 IAEA査察 및 南北韓核 問題 關聯 北韓論說, 核統制共同委에서의 北韓主張 등 分析結果)

## (3) 雙方間의 爭點

92.2. 6次高位級會談에서 「南北合意書」와 「韓半島 非核化共同宣言」이 發效된 以後 92.9 8次會談(3個 附屬合意書 發效)까지 사이에 나타난 雙方間의 主要 基本爭點(潛在된 요소 포함)은 다음(북측주장)과 같이 요약됨

### (가) 政治分科委

和解를 沮害하는 法律的 制度的 裝置의 除去, 外國과 맺은 條約보다 基本合意書가 優位라는 概念, 南北韓 關係는 國家間 關係가 아닌 特殊 關係

※ 國家保安法 反共政策廢止, 韓美防衛條約弱화, 高麗聯邦制 指向 등 겨냥

#### (나) 軍事分科委

軍事分界線一帶 武力增強禁止, 偵察·封鎖禁止等

※ 休戰線地帶 武力優位 繼續 維持, 韓美軍事 活動 弱화를 겨냥

#### (다) 交流協力分科委

自由往來 沮害하는 法律的 制度的 裝置 除去

※ 保安法等 撤廢, 統一戰線 與件造成 겨냥

#### (라) 核統制共同委

特別查察과 軍事基地 查察反對

※ 對南政治 軍事態勢 堅持에 障礙造成 不容

#### (4) 綜合 評價

- 北韓은 合意書 履行의 原則으로 7.4 共同聲明의 統一 3原則이 堅持되어야 한다는 立場에서 合意書의 性格 및 主要條項 內容에 대해 우리와 解析을 달리한 가운데 論爭의 餘地를 남겨둔 채 國家保安法 廢止, 反共民主政策 抑制, 韓美防衛條約 弱화, 核問題를 이용한 對外 對南 策略등을 企圖하고 있으며 我側은 雙方關係의 正常化와 北韓의 改革開放을 誘導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이상의 爭點들은 8次會談에서 採擇發效(92.9.17)된 基本合意書

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등에서 대부분 “附記” 또는 “條項”에 明示되거나 北側이 連繫 解析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北韓은 南北合意書가 統一 3大原則下의 民族統一 鬭爭에서 얻은 큰 成果로서 그들 統一路線을 實現하는 디딤돌로 된다 (92.1 金日成 新年辭)고 보고 論爭의 長期化내지 原則合意에 注力하면서 合意書 履行問題를 反體制 活動에 有利한 方向으로 誘導하거나 統一戰線工作推進에 活用하는 등 統一戰線戰術的 觀點에서 把握하여 對話窓口 一元化의 無實化 및 各種 民間級 對話의 創出 契機에 利用하는 한편 同 合意書와 核 共同宣言을 體制 固守와 對南 對外關係에 活用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 다. 92年 南北對話에 대한 北韓의 評價

- 北韓은 東歐·蘇聯共產體制 崩壞에 따른 지난 4年間의 周邊情勢 急變으로 인해 그들의 梗塞된 對外環境의 克服 및 體制維持策의 講究 그리고 平和演變에 對處하는 防禦的 態勢下의 對外·對南 戰略戰術의 展開가 不可避한 狀況에 놓였음. 특히 核開發과 관련한 國際的 對北糾彈 輿論에 對應하면서 南韓에 대해 5共未이래 增大되어 가는 矛盾·葛藤構造에 파고 들면서 暴力革命勢力 (南韓 朝鮮勞動黨등)과의 連動을 피해야 할 立場에 있음.
- 北韓이 變貌하는 內外狀況에 대한 이같은 認識으로부터 出發하여 展開한 南北對話는 核問題에서는 我側의 이른바 武裝解除

(91.11 및 12의 核關聯 宣言)를 先取한 環境에서 對處해 나가  
되 이와 더불어 南北合意書를 生産함으로써 결국 不可侵宣言,  
非核化, T/S 訓練 廢止, 段階的 美軍撤收등의 基本要求를 貫徹시  
켜 나가는 一方 우리의 反共民主政策 抑制 및 革命情勢 造成에  
注力하면서 그들 體制維持策을 講究하려는데 역점을 두었음이  
明白함(92.1. 金日成 新年辭, 6次會談 北韓立場등 綜合評價)

○ 이상 北側의 立場과 企圖 및 對話過程을 감안할 때 그들은

- 美國의 核軍縮 宣言과 韓國의 核不在 宣言, T/S訓練 暫定 中斷  
등 댓가를 얻어낸 후 核 安全協定과 非核化 共同宣言에 合意한  
일 그리고 論爭의 長期化 내지 原則合意에 注力한 일등에서는  
상당히 성공했으나
- 基本合意書 採擇 및 附屬合意書 妥結에 이르는 과정에 특히  
韓國國家實體 否認, 對南暴力革命 路線, 對美平和協定論理등의  
拋棄를 明文化했고 連絡事務所 設置, 經濟交流·協力共同委,  
出版報道的 協力交流를 수용함은 물론 一括合意·同時實踐原  
則 등에서 後退하는 등으로 인해
- 지난 時期의 南北對話에서와 같이 原則合意後 施行過程에서  
前提條件을 들어 難關을 조성하거나 會談不振 責任을 轉嫁하  
여 合意를 破棄할 수 있는 餘地는 상당히 좁혀진 結果를 招來  
케 된 것으로 評價할 것임

## 라. 成果와 問題點 檢討

### (1) 成 果

- 我側은 南北合意書 協商過程에서 우리측 方案의 說得과 北側의 不當한 主張撤回를 要求하는 立場을 堅持하여 相互體制 尊重, 破壞顛覆 禁止, 平和體制로의 轉換, 軍事的 信賴構築, 多角的 交流·協力實施등 우리측 方案을 거의 그대로 반영시켰고
- 北側이 軍事·政治問題 先決 그리고 UN 單一議席 加入, 拘束者 釋放, T/S 訓練 中止등 「3個 緊急課題」에 주력했으나 그들에게 擡頭된 當面 懸案問題(對美·日 接近 基盤構築, 國際的인 南北 對話 進展 壓力, 內部體制 防禦등)로 인해 基本合意書 채택의 반대를 撤回하고 우리측이 主張한 名稱·內容등을 相當部分 수 용치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 나아가 北韓이 核開發에 대한 國際的 壓力에 直面하여 非核地帶化 主張을 拋棄하고 核再處理 施設 不保有, 南北 相互査察등 우리측의 非核化案을 受諾, 明文化 하게 되었고, 그들이 受容不可 立場을 보였던 連絡事務所 設置, 出版·報道分野의 協力交流등 도 受容케 하였음
- 따라서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宣言의 解釋 및 施行上에는 解釋上의 論爭素地 등으로 인해 北韓의 政策本質이 변하지 않는 한 難關은 豫想되나 그들이 固守해왔던 우리 國家實體의 否認, 對南

暴力革命路線, 對美 平和協定締結 論理등을 제압할 수 있는 論據가 마련되었으며

- 또한 國際情勢急變과 南北韓關係의 位相 變化시기에 雙方當局間에 생산해 냈다는 점으로 보아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간의 對決 時代를 清算하고 和解 協力の 새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마련된 것임

## (2) 問題點 檢討

### (가) 基本合意書 內容面

- 前文에서 말썬 많은 「祖國統一 3대 原則」을 再確認함으로써 「民族의 大團結」에 대신하여 「民主的」을 표면화시키지 못했고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韓半島問題의 민족 내부화와 對南統一戰線策動의 論據로 활용할 소지를 남겨놓았음

※ ‘自主的 立場은 南北合意書의 기본정신의 하나이며... 북과 남은 合意書를 통하여 自主의 길로 나가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民族主體的인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해 民族앞에 嚴肅히 서약하였다’(92.10.7 노동신문논설)

- 이에 따라 北韓은 南北和解 條項의 主要規定을 상대방에 대한 國家不認定 論理와 연계시켜 국가간의 內政 不干涉 機能을 희석

시킬 소지가 있고 南北不可侵 條項에서는 軍事問題의 民族內部化 기조로 연결시킬 수도 있으며, 南北協力·交流條項도 민족내부 교류의 經濟關係 및 人的·物的·情報등에 대한 對南攪亂 등 統一戰線策動企圖에 이용가능한 것으로 볼 것임

#### (나) 合意書 履行으로의 轉換面

南北和解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는 北韓의 「하나의 조선」論理에 立脚한 각종 主張을 「附記」로 하여 政治分科委에서 계속 討議하는 것으로 남겨 놓았으나(92. 9. 17 8차회담) 交流協力 分科委는, 인도적 문제의 解決 部分을 막연하게 赤十字 團體間에 協議 實踐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인도적 문제의 比重을 弱化시키는 結果를 초래케 했음.

#### (다) 核關聯 事項面

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92. 2. 19) 및 이에 根據한 核統制 共同委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92. 3. 19)는 마련되었으나, 아축의 사전 무장해제적 措置와 ‘쌍방합의대상’에 대한 査察規定 때문에 核共同委에서 核問題는 北韓과 IAEA간의 문제, 시범사찰로는 核疑惑 解決 不可, 영변對 南의 모든 軍事施設 査察등의 主張에 직면했는데 이는 非核化共同宣言과 核共同委가 북의 지연전술에 이용당하거나 상당기간 IAEA査察에 의존케하는 要因으로 되는 것임

## (라) 會談戰略面

- 南北基本合意書 採擇(91.12.13)과 관련한 최초의 評價(통일원)에서는 동 合意書에 立脚하여 모두 잘 풀려나가 남북간의 대결 시대가 청산되고 和解 協力을 통한 統一時代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評價하였으나, 그후 合意書에 대한 北韓의 論調 및 6차회담(92.2)에서의 北韓의 基本立場등을 간파하고 나서야 北側의 저의와 기도를 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指摘해야 할 것임
- 北側은 革命鬪士로서 會談에 임하는데 비해 아측은 會談要員중 안기부원을 제거하려는 北側의 策略(북한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주장)에 말려드는 愚를 범하고 있음
- 각종 附屬合意書 採擇過程에서 시현된 바 같이 北側은 各分科委가 유기적 연계아래 戰略戰術을 구사하는데 반해 아측은 分科委別 各개약진하는 경향마저 보임으로써 가장 중요한 인도적 문제를 격하시키고 이에 관한 추진여부의 주도권을 北韓에게 넘겨주는 失策을 범하고 말았음

## (마) 會談外的 狀況面

- 역사적인 高位級會談과 各種合意書 산출이 미치는 파급영향을 勸案하여 弘報·心理戰과 함께 政治的·社會的 凝集力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南北合意書 採擇時의 안이한 評價와 核心을 浮刻



시키지 못하는 報道등으로 인해 汎民族大會(3차 92.8)의 당위적 무실화를 성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동 대회가 꾸준히 年例化 되는 경향일 뿐만 아니라

- 南北會談이 南韓朝鮮勞動黨 事件에서 立證된 바 같이 오히려 국민의 對北警戒心 弛緩 및 적·아 개념 구분의 둔화경향을 초래하는데 일조하였으며
- 나아가 統一問題에 대한 국민의식의 혼선 내지 안이한 통일환상을 深化시키는 作用을 했음

#### (바) 統一方案 關聯面

短期的으로 볼때 한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의 政策 推進構圖에 기여치 못하고 있음. 즉 和解協力 關係의 發展 → 平和體制 構築 → 南北聯合實現 → 統一國家建設이라는 政策推進構圖는 相互開放과 交流協力 내지 상호인정하는 平和的 關係 設定이 그 기초로 되는바, 「合意」문서는 이같은 기초를 상당부분 설정하고는 있으나, 會談을 통해서 이를 實踐, 履行하는 轉換態勢를(문제점 검토 나)) 進展시키지 못하고 국민제도 마저 未洽하여, 오히려 우리통일 방안의 合理性과 現實性에 대한 지지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 2. 93年度 情勢展望 및 北韓의 豫想策動

### 가. 北韓 情勢展望

#### (1) 最近 特異 動向

- 北韓은 92년들어 産業施設稼動率이 40%로 低下되고 食糧事情 또한 더욱 緊박해진 가운데 지난 3년간 經濟成長率이 負의 成長을 더해가는 등으로 극악한 經濟實相을 나타내고 있고 蘇聯, 東歐 共產體制 崩壞와 韓中修交以後 社會統制 마저 加一層 強化되고 있는 바 이같은 實情은
  - ‘社會主義를 버리면 죽음과 破滅뿐’(92.7.7 勞動新聞)이라며
  - 黨創建 47주를 기해 ‘黨領導의 重要性和 金正日을 中心으로 한 黨의 主體 革命偉業을 끝까지 완수할 것’
  - 그리고 특히 革命의 代가 바뀌고 內外情勢가 복잡할 때 黨의 統一團結을 固守하기 위한 鬪爭을 옹기 벌이는 것이 重要하다면서 사상단련에 最大力點을 둘 것을 強調(92.10.10 金正日 논문 「革命的 黨 建設의 根本問題에 대하여」)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 심지어 ‘帝國主義者들의 反社會主義的 策動이 계속되고 내부에 그와 연결되는 不純分者들이 存在하는 條件에서 社會主義 政權은 이들을 제때에 짓부셔야 한다... 人民政權은 反社會主義的 요소들에 대한 獨裁機能도 수행해야 하며 政權의 獨裁機

能을 악화시키면 社會主義 制度 自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92.3.7 中央放送, 金正日이 1.3 黨幹部들에게 행한 「社會主義 建設의 歷史的 敎訓과 우리黨의 總路線」에 대한 해설프로)하는 등

－ 內部不純勢力 存在와 이의 剔抉을 통한 人民政權 強化意志를 力說하는 것으로 보아 體制危機와 직결되는 指導 路線上의 葛藤이 增大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음.

○ 따라서 北韓에서는 現在 '權力承繼時期에 온갖 이색분자가 머리를 쳐들고 領導를 헐뜯는다'고 警告(92.9.29 中央放送)한데서도 더욱 뚜렷해진 바와 같이 당료들은 主體思想과 現領導體制를 固守하는 가운데 革命과 建設, 우리식 社會主義의 物質·思想的 要塞의 強化를 主張하는 반면 經濟와 外交의 일부 實務陣은 現 指導路線의 修正을 통해 經濟活性化와 周邊政勢 變化에 적응해 보고자 기도하고 있음이 분명함.

## (2) 指導路線에 대한 葛藤問題 檢討

○ 위와 같은 갈등 징후는 80高齡을 넘게 되는 金日成의 壽命과 周邊情勢 急變 및 統一問題와 連繫되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 인해 保守와 進歩의 派閥對決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과거 1次 7個年計劃(1961~당초 1967)終盤期에 計劃目標 미달이 심화되어 가자 '社會主義 經濟規模가 커질수록 經濟成長

速度가 鈍化된다’는 주장과 ‘經濟規模가 커지더라도 人民의 革命的 熱意에 의해 계속 高度成長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對立되어 결국 金日成이 후자를 택함으로써 (1969.3 「社會主義 經濟의 몇가지 理論問題」) 당시 黨 組織責 박금철, 對南 工作責 이효순 등의 肅清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으며

－ 이같은 黨內 論爭은 軍事政策과 戰略面에서도 심화되어 現代戰을 주장하는 唯武器論者와 그 반대자간의 대립에서 「現代戰과 革命戰爭의 合法則性」이란 개념 정리를 하고 唯武器論者인 김창봉, 허봉학 大將등을 肅清(1969.1)하는 것으로 종결지었음.

○ 따라서 金日成의 權威가 오늘과 같은 唯一神化에까지 이르지 못한 1960年代에도 그의 結論으로 완전 침묵을 시켰던 歷史的 事實에 비추어 볼때 現在 北韓에서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保革갈등은 金日成의 결단에 의해 충분히 침묵시킬 수 있는 것이며

○ 이미 그 징후는 ‘政治事業을 앞세워 人民大衆의 革命的 熱意와 創造的 積極性を 높이는 方法만이 社會主義 制度를 強化하고, 그 優越性を 發揚시켜 나가는 革命的 方法’(92.10.10 金正日論文: 「革命的 黨建設의 根本問題에 대하여」)이라면서 ‘經濟幹部들의 管理 및 實務能力提高가 經濟發展의 絶실한 요구’(92.11.7 中放)라는 論調마저 잦아진 것을 보면 金日成은 기본적으로 이미 保守쪽을 택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經濟特區 新設과 合營法 補完 및 憲法改正 등에서 示唆하는 바와 같은 改革·開放은 體制 保衛 範圍내의 미미한 것에 국한할 것으로 보임
- 더구나 黨政治局과 秘書局員의 近 80%가 20年이상 長期 再任者이고 거의 모두 60代들이라는 점, 그리고 91.12 金正日이 最高司令官에 就任한 후 將星級을 대거 進級시키는 등으로 金父子가 軍事體制에 더욱 기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基本路線 및 政策의 變化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나. 周邊國의 「韓半島問題」關聯 政策 展望

### (1) 美國의 政策展望

- 美國은 北韓의 核開發 憂慮가 불식될 경우 北韓과의 對話水準을 格상하고 關係正常化를 추진할 容의가 있음(92.5.13 켄터國務次官)을 분명히하고 있을 뿐 아니라, ‘北韓이 核開發을 포기한다면 北韓에 現代적 核에너지 기술을 提供할 수도 있다’(92.6.8 國防部 代辯人)는 立場에 있음  
이는 北韓이 세계 안전에 가장 威脅을 주고 있다(92.6.20 월포워즈 國防次官)는 認識에 基礎하여 美國政府가 앞으로도 계속 北韓의 核開發 沮止 壓力을 強化해 나갈 것임을 示唆하는 것임
- 따라서 美國은 北韓에 대한 부시政府의 要求事項인 南北韓 相互 核査察, 韓國戰 遺骸送還問題의 진전, 미사일 및 미사일 技術輸

出 中斷 , 人權狀況 改善 등이 93.1 出帆하는 새政府(大統領 選舉戰에 제시된 政策)아래서도 계속 될 것임을 물론 民主主義 價値 擴散에도 중점을 둘 것이므로 이것이 촉진되지 않을 경우 美 · 北關係 改善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立場을 유지할 것임.

## (2) 日本의 政策展望

- 日本은 南北合意書 採擇과 韓 · 中國交 樹立 및 韓 · 蘇頂上會談 등으로 인해 韓國의 견제에 과민하지 않고서도 對北關係를 추진할 國際的 · 外交的 立場이 용이해진 것으로 판단할 것이나 다만 ‘北韓이 核問題解決에 납득할만하고 믿을 수 있는 措置를 취한다면 日 · 北修交 協商은 진전될 수 있을 것’(92.6.22 미야자와 總理)이라고 한 바와 같이 核問題를 가장 큰 對北障礙要素로 보고 있는 것임
- 日本으로서 92년에 日 · 北韓 修交會談이 經濟問題의 타결이 있어야 實質的 討議가 가능하고 核問題 해결후에야 完결된다는 構造的 特性을 지니고 있음을 再確認했기 때문에 請求權 次元에서의 타협을 기도하는 한편
  - 北韓이 최근 종래의 先修交 後 懸案妥結로부터 經濟的 問題에 정면 對決하는 듯한 對日 強硬姿勢를 나타내면서도 統一직전까지 駐韓美軍 存在를 용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것 등은 對美關係改善 우선을 통한 對日關係의 타개를 企圖(北韓의 對美 · 日 外交政策은 美 · 日 相互間의 競爭關係를 묘사하는 金日成의 갖끈이론에 의거함)하는 것으로 評價하고

- 周邊 4強 關係의 커다란 변수요인이 대두하지 않는 한 北韓이 現實認定의 方向으로 수정되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당분간 지속할 것임

### (3) 中國의 政策展望

- 中國과 北韓은 韓·中關係 正常化(92.8.24)에 따라 雙方間의 기본 友好關係의 維持와 함께 韓半島 주변상황의 변모에 能動的으로 대처해야하는 外交課題를 안게 되었다 할 것인 바
- 友好關係 유지 측면에서는 주로 理念面의 판단에 기초하여 종전까지의 雙方間 신의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中國式 社會主義가 社會主義 견지, ML主義와 毛澤東 思想견지, 黨領導의 견지, 人民民主主義 獨裁견지등의 4原則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므로 中國은 蘇聯·東歐의 體制崩壞로 인해 相對적으로 中國·北韓間의 기존 社會主義體制 및 理念을 雙方關係에서 유지해 나가고자 할 것임(92.8.24 中國 外交部代辯人: '韓·中修交에도 불구하고, 北韓에 대한 傳統的 親善 關係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 그러나 中國이 對外關係에서 平和共存 5原則을 견지하면서 對韓 수교이후 南北韓 關係에서 影響力을 증대해 나가야 하는 立場에서 '聯邦制 統一方案 支持'내용없이 '南北高位級會談의 進展과

關係改善'을 권유(92.9.9 江澤民이 金日成에게 보낸 9.9節 祝電)한 것과 金日成이 中國創建記念日(92.10.1)에 江澤民에게 보낸 祝電에서 종래까지 강조해오던 '血盟關係'를 언급치 않고 '朝·中間 親善協調 強化'를 강조한 것등을 보면 종래의 一方的 北韓支持에서 장차 雙方關係를 선린 우호관계로 再調整해 나가면서 對韓半島 개입도를 증폭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統一問題에 있어서 中國은 '韓半島가 한민족에 의해 平和的으로 統一되는 것을 지지한다'(韓·中修交 共同聲明)고 하여 한민족의 '自主的 立場'의 존중(92.5.20 江澤民 總書記: 中國은 金日成의 自主·平和統一 主張을 견결히 지지)을 南北韓에게 有效適切하게 구사하므로써 최근년 변모를 보이고 있는 1民族 1國家, 2制度 2政府라는 北韓의 聯邦制에 준하여 東北亞 平和安保의 발전 테두리내에서 대응코자 할 것으로 보임

#### (4) 러시아의 政策展望

社會主義體制 붕괴속에 市場經濟體制와 自由民主主義를 부식시켜 가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南北韓이 合意書를 채택한 것과 그들이 당면한 對日關係의 難關등을 감안하여 自國利益 중심의 對南北韓政策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입장에 있음

- 따라서 東方나들이에서 제일 먼저 韓國방문을 택한 엘친大統領의 行步(92.11)의 意味와 韓·蘇 友好條約등의 체결을 평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러시아는



- 韓國의 對北 核問題 解決 노력지지·支援, 攻擊武器 北韓 지급 중단사실, 北韓·蘇聯 基本條約 1條의 새로운 상황 변화논리 적용등을 공개했고 (92. 3. 18 코지레프外相)
- 脫이데올로기 原則에 입각한 對外政策속에 北韓에 대한 相互利益에 따른 관계 견지를 천명 (92. 6. 30 엘친大統領)하는 등으로 기존의 對北韓 關係를 크게 수정하였음
- 러시아는 이같은 기초위에서 92. 11월 韓國과 兩國關係 基本條約 그리고 6개 協約을 締結하고 核沮止를 위한 對北 政治的 압력을 천명하기에 이르렀음
- 그러므로 러시아는 經濟危機에서 오는 불안으로 인해 經濟改革 속도 및 방향과 관련된 保守·進歩간의 過渡期的 혼란양상이 계속될 전망에 있고 또한 그들의 과학기술능력과 풍부한 자원을 기초로 하여 經濟大國이 될 수 있다는 국민감정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의 市場經濟 정착도와 韓國과의 價値觀접근 여하에 따라서 對北支持度を 相對的으로 낮추어갈 가능성이 농후함

### (5) 綜 合 判 斷

-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바라는 주변 強大國들은 北韓의 核開發을 반대하면서 南北對話의 진전을 바라는 立場에 있으며 특히 中國은 北韓에 대해 體制面(이데올로기)의 유대와 實利關係를 병행시켜 나가는데 비해 러시아는 실리에 치중한 對北關係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南北韓에 대한 이들의 既得權 유지내지 影響力 제고기도 새로운 차원에서 相互牽制내지 경쟁관계에 놓일 것이며 특히 東北亞 4強關係의 균형자로서의 美國의 지위 획득노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각국은 韓半島 平和에 역행치 않는 범위내에서 각기의 國益中心政策을 증폭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다. 예상되는 北韓의 對外·對南 策略

### (1) 對美 策略

- 92年 들어 北韓은 對日修交協商이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특히 美國과의 接觸 및 관계개선에 積極的 자세를 보였고 核問題에 대해서 美國과 직접 협상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볼때
  - 그들은 核開發 問題를 對北 最大 관심사로 삼고 있는 美國이 對北關係 개선을 통해 얻을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경우, 美·北 談判의 轉機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임
- 그러므로 北韓은 이같은 轉機가 이룩될때까지 계속 核問題는 IAEA와의 관계이고 統一問題는 周邊國家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對美平和協定締結 主張을 하면서 核카드를 對美關係에 이용해 나갈 것임
  - ※ 이는 92.9 北韓 外交部長 金永南이 美 아시아협회에서 雙方關係 개선의 필요성과 美國의 對北 政策變化를 촉구하면서 對美

關係改善의 관건인 核問題 解決에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음

- 그러나 韓·美 新政府의 政策方向을 진단한 이후, 향후 1~2년을 고비로 核問題解決을 내세우거나 南北相互 核査察 규정 마련의 진전을 구실로 美·北 2者會談(또는 3者會談)을 기도하거나 그들이 요구한 바 같이 장차 核開發 중단의사를 비쳐 선진기술에의 접근을 얻어내면서 對美·日 關係에서 돌파구를 마련코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 對日 策略

- 北韓·日本修交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從軍慰安婦 문제 등을 들어 對日非難 攻勢를 강화한 北韓은 對美 關係改善 우선에 의해 일본으로 하여금 對美 競爭心を 유발케하려는 이른바 對美 迂迴方案을 적용코자 하고 있으나
- 核問題에 대한 日本의 對北姿勢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은 명분(보상차원)을 어느정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請求權 次元의 접근, 타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對日 修交의 障礙인 核問題 역시 그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障壁(92.7 美·日 頂上會談 聲明: 北韓의 核開發 저지를 위한 國際的 共助體制 구축노력 천명, G-7頂上의 北韓 核武器 開發에 대한 우려)을 감안하여 核問題등과 관련한 對美·對南策略을 日本에 投射시키는 方略을 구사할 것임

### (3) 對 中 策 略

- 北韓이 韓·蘇 修交時와는 달리 韓·中 修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변정세가 南北韓 交叉承認 추세로 변모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中國과의 이데올로기의 同盟關係의 지속(나아가 기존의 유대관계 지속)이 절실한 立場 이기 때문인 바
- 北韓은 그들의 對美·日關係에 中國의 仲裁 역량이 미약할 것으로 예견하면서도(美·日이 모두 對北關係 改善 方向을 獨自的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상황) 그나마 外交支援은 中國으로부터 얻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 그리고 中國의 韓半島 統一問題에 대한 「自主的 立場」등을 감안하여 中國과의 同盟, 友好親善關係 유지에 주력할 것임

### (4) 對「러」策 略

北韓으로서는 러시아와의 關係가 非思想的 기초위에 再調整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雙方間에 通商 및 經濟分野의 維持擴大 必要性을 의식하고 CIS 主要國家들과의 關係設定속에 對러 正常關係 유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할 것임(‘자주, 평등과 內政 不干涉原則에 따라 두나라 親善關係가 계속 發展될 것을 確信한다’는 엘친 大統領에게 보낸 金日成의 8.15 47周年 祝電)

## (5) 對 UN 策略

- 南北韓 UN同時加入(91.9 46차 總會) 및 南北基本合意書採擇(91.12), 그리고 3개 附屬合意書의 발효(92.9)와 歴史的인 韓·中修交(92.8)등으로 이어진 지난 1年여간의 重大한 情勢變化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지난 46次 總會에서 밝힌 原則에 別다른 變化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즉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北·南이 하나의 國號를 가지고 하나의 議席을 차지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인민의 團合된 努力과 成員國들의 協力에 의해 하나의 議席을 차지할 날이 꼭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南北 附屬合意書에 마저 그와 關聯된 主張을 계속 협의사항으로 「附記」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UN무대를 자기주장의 宣傳場으로 活用, 「하나의 조선」論理에 입각한 韓半島 問題解決을 主張할 것이고
  - 나아가 UN同時加入을 들어 UN이 北韓과의 유산을 청산하고 韓半島 統一問題에 긍정적 役割을 하도록 추구할 것이며
- 北韓은 특히 韓·中 修交에 따라 더욱 加중되고 있는 美·日 등 西方과의 關係 改善問題를 UN무대를 통해 촉진시키고자 美·北 韓間 平和協定締結의 필요성, 駐韓美軍存在에 대한 柔軟態度(통일에 방해되지 않는 한 부분주둔 인정등), 南北核査察 問題의 양보 의향 등을 미미하나마 漸進的으로 意識化시키는 方略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6) 對南戰略

- 北韓은 南韓에 대해 6共政權의 國際進出과 經濟力量을 어느 정도 평가하면서도 南韓 情勢가 經濟社會的 모순의 증대 그리고 대중의 政治的 覺醒提高에 따른 기존 政治·權力體制에 대한 도전역량의 성장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構造改革이 不可避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즉 6.29선언 이후 현재까지의 對南論調를 종합해 보면 親與保守와 民主連共勢力間의 대립이 尖銳化되고 南北合意書로 運動圈이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중을 鬪爭에 동원시킬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임

- 따라서 金日成 집단은 南韓에 社會革命, 暴力革命을 촉발시켜 南韓赤化를 완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가 설정한 1995년 赤化統一 目標을 향해 당면하게 1993년부터 民衆民主聯合政府(連共的聯合政府) 樹立을 성취하기 위한 對南策略에 총력을 경주할 것인 바 相關자료(90.12 적발된 운동권 學生 地下組織의 活動計劃, 92.10 밝혀진 南韓朝鮮勞動黨事件, 10.4 노동신문 등)를 종합해 보면 同策略 스케줄은

- 90, 91年을 革命의 준비기로서 反民自黨聯合戰線 構築
- 92, 93年에 총선과 대선을 통해 야당권 인사를 당선시켜 각계 민중대표가 참여하는 「民主聯合政府」 樹立(「중심고리」 포착 이용한 각종투쟁 통해서라도 성취)

- 94년에 民衆 蜂起를 야기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人民 民主主義 政權 樹立
  - 95년에 북한과 聯邦制 統一(합작 내지 政治·軍事 행동을 통해 성취)實現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北韓은 그간 南北對話를 내외적 難局의 糊塗 내지 脫皮를 위해 이용하면서 國保法撤廢, 反共民主政策弱화 등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非合法的 地下黨 工作과 合法政黨內的 橋頭堡 構築(南韓朝鮮勞動黨 結成)에 진력했으며, 汎民聯 및 汎靑學聯의 결성을 통한 統一戰線形成 그리고 92년까지 3次에 걸친 汎民族大會 개최 등을 통해 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하면서, 心理戰 工作을 병행 추진해 온 것인 바, 이 같은 策略은 앞으로도 활동공간과 시간의 조성도에 따라 適宜 조절하면서 더욱 積極的으로 展開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 예상되는 북한의 對南策略 및 對話戰略은 92.12의 대선에서 누가 當選되느냐 그리고 93年初 출범하는 韓·美 새정부의 對北政策 방향과 향후 우리內部事態 등을 보아 가면서 戰術戰略的 變用을 드러낼 것으로 보임

## 라. 豫想되는 北韓의 對話 戰略

- 북한은 8次 高位級會談에서 彼我間의 重要爭點들을 남긴채 기본 골격을 갖춘 부속합의서(92.9.17)를 채택하는데 동의한 후 김남

중간첩사건(92.9)과 南韓朝鮮勞動黨 사건 발표 및 '93 T/S訓練再開可能性이 시사(92.10 24차 韓美年例安保會議에서)되자

－ 이상의 발표들을 싸잡아 ‘북침을 위한 전쟁모의’, ‘合意書의 유린행위’(92.10.12 各社會團體糾彈聲明, 10.14 연형묵의 대남편지)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특히 ‘’93 T/S훈련이 강행될 경우 남북대화는 중단될 것’이라는 黨·政·團體聯合會議(10.27), 외교부비망록(10.28), 北韓側 共同委員長들의 聯合聲明(11.3) 등을 발표하고 各種 言論媒體를 통해 T/S훈련중지와 미군 및 핵무기철수, 非核化와 관련한 全面 同時查察 등을 집중 거론하고 나섰으며

－ 특히 北韓은 南北高位級會談 결렬 후 50일간의 南韓行動을 종합하여 ‘朝鮮半島의 긴장완화를 달가와 하지 않는 美國이 南朝鮮 당국자들을 反統一 행위로 사주하고 있으며 이에 鼓舞된 南朝鮮의 反民族 분자들이 7.4 共同聲明을 휴지장으로 만든 전철을 밟아 合意書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 범죄적 책동에 피눈이 되고 있음을 폭로해 주고 있다’(92.11.12 중앙방송)고 규탄하는 등 남북대화의 중단을 강력히 示唆했음

○ 현시점에서 北韓이 고위급회담을 중단시키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착안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南北合意書 및 非核化共同宣言採擇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핵사찰을 될수록 遷延시키려는 저의로부터 출발했던 바 '93 T/S훈



런재개를 구실로 남북상호핵사찰을 가능한한 시간적으로 더 지연시키는 한편 核問題 해결압력을 희석시키면서 개발중인 핵무기 완성을 촉진하며

- 美國과 韓國의 政權 交替期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92. 12 大統領選舉를 民自黨에 불리하게 만들고
- 民間級 對話·接觸을 추진하는(10.27 黨·政·團體聯合會議 聲明) 轉機마련에 逆用하려는 저의임
- 그리고 合意履行으로의 전환단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중단위협 구실을 포착했기 때문에 당초의 「論爭의 長期化 및 原則合意」 수준의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北韓의 내부긴장 조성 명분에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보기때문임

○ 따라서 北韓은 앞으로 韓國의 大選政局이 경과한 후 美國(新政府出帆)과의 關係 改善 및 對日修交協商 등 현안문제가 對話中斷으로 인해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高位級會談 재개에 나설 것으로 豫想됨('93 전반기중)

○ 豫相되는 북한 對話戰略

北韓이 그들의 對外·對南戰略과 體制維持에 기여되는 범위내에서 南北對話에 임한다고 볼 때 南韓革命·赤化統一을 향한 당면 방침에 충실할 수 있는 短期 對話戰略(93年度)은 다음과 같이 예상됨

- 核問題에서는 IAEA査察을 계속 수용하면서 疑心同時解消原

則에 입각한 論爭持續후 적절한 시기에 南北核統制 共同委에서 相互査察의 原則・對象・方法등을 토의하는 단계로 전환함으로써 核問題에 대한 國際的 압력의 稀釋化 및 對美 직접협상의 통로모색(核武器 완성에 집착)

※ 制限的 상호사찰 수용책략 병행가능성

- 離散家族 問題는 北韓의 체제유지와 南韓의 「法的・制度的」 장치철폐에 주안점을 두고 李仁模 送還과 板門店 面會所 設置 問題를 타협하되 大統領選舉 결과와 南韓情勢추이에 따라서는 既合意한 老父母 방문문제를 「革命的 影響力」을 줄 수 있는 藝術團 交換에 역점을 두고 급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 經濟交流協力は 주로 合作分野에 역점을 두고 實質적으로 촉진해 나가되 共同開發・物資交流 등을 포함한 광범한 「協議」를 통해 大企業間, 政府・企業間의 갈등모순 조작에 계속 주력
- 기타 各 分野 附屬合意書 이행대책은 核問題 解決可能性이 거의 없고 平和的 南北 關係가 이룩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核問題 先行을 주장하는 我側에 대해 論爭과 協議의 지속으로써 內外的 부수효과를 擧揚하는데 주안점

### 3. 우리의 對策

#### 가. 短·中期 對策 方向

##### (1) 基本 構想

以上에서 살펴 본 內容들 中 北韓의 1995年度를 향한 赤化統一 戰略 計劃과 우리의 深化되어가는 矛盾·葛藤 現狀을 綜合해 볼 때

- 우리體制 內部的 政治·經濟·社會·文化 등의 諸般 矛盾과 不條理가 北韓의 對南 統一戰線 및 政治·軍事的 策略에 迎合 局面을 增進시키는 傾向임을 直視하고 새로 出帆하는 政府는 長期的으로 總體的 國力を 伸張시키는데 注力하면서 短·中期的으로
- 左翼革命勢力的 擴散을 根絶할 政策的 決斷을 내려 이를 積極 施行하면서 對北戰略을 總點檢·再定立(統一政策基調는 不變) 하여 效率的으로 對應해 나가는 한편
- 北韓의 對南 統一戰線策動에 대한 꾸준한 對備가 緊要함

##### (2) 北韓體制的 變化 要因에 照應한 構想

- 東歐變革과 蘇聯體制 崩壞등 急激한 共產圈 地殼變動으로 인해 北韓이 改革·開放되거나 崩壞될 것이라는 막연한 展望속에 北韓을 觀察하던 內心的 期待를 떨쳐 버려야 함
- 東歐와 발트 3國은 共產化 이전에 開放社會的인 民主主義를

經驗한 政治 文化的 要因으로 인해 表面的 變化以後 밑으로부터의 變革을 成就시켰으나 蘇聯은 짜르와 볼셰비키만 경험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變化(「고르비」등장, 軍部 쿠데타와 그 反動)가 이룩되었다는 사실을 勘案한다면

— 北韓은 基本的으로 위로부터의 變化가 있어야 할 것이나 金父子가 儼存하는 한 그 必要性은 認定되더라도 變化에는 限界가 있게 마련인 것임

○ 설사 金日成의 壽命이 끝난다 하더라도 軍事體制화된 金正日 權力내지 金日成에 대신한 軍事權力體制가 일단 維持될 可能性이 있다는 點을 考慮한다면 高루한 金日成·金正日政權에 對應하는 長期的 構想이 필요한 바

— 金日成父子 政權을 相對한 主敵과의 南北對話와 우리 同伴者인 北韓同胞와의 關係를 勘案한 새로운 觀點에 立脚해야 하고 (北韓政權을 相對한 만형論理나 同伴者 關係의 設定은 對北觀에 혼선만 야기)

— 統一은 南北關係가 正常的으로 運營되는 過程에서 서로의 必要에 의해 이룩되는 民族·國家統合이어야 한다는 大戰略 方針을 세워야 함

○ 따라서 우리 內部的 安定·繁榮으로 統一對備 力量을 備蓄하는데 全力投球하므로써 北으로 하여금 對南顛覆策略이 無意味함을 認識시키는 한편 北의 開放과 變化를 促進시키는 可視的 成果속에서 平和的 南北關係가 發展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바

- 이를 위해서 當面 對北戰略은 北韓에 中國式 모델의 適用 내지 위와 밑으로부터의 變革을 促進케 하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對南 顛覆策動을 緩和케 하면서 自身の 危機管理 次元에서 對南關係를 改善하지 않을 수 없도록 促進시켜 나가야 함
-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北韓의 開放促進을 「主」로 하고 對話는 「從」으로 되어야 함
- 다만 金日成 死亡時 急激한 變革可能性에 대해서도 對備策을 강구해 두는 한편 北韓의 '94~'95 對南民衆蜂起·赤化 도식이 政治·軍事的 攻勢(武裝組投入, 消滅時 再投入 등)의 擴大에 따른 南韓의 報復攻撃을 抑制하기 위한 「核」戰略과 密接하게 連繫되어 있을 可能性을 勘案하여 「積極防禦」態勢를 항시 견지해야 함
- ※ 北韓은 「하나의 조선」, 「南韓人民의 鬪爭을 支援하는 것은 같은 民族으로서의 義務이며 內政干涉이 아님」이라는 論理를 適用

## 나. '93年度 對北戰略

1993年은 北韓의 當面 對南 革命, 赤化策略의 進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해이므로 이에 대처하는 短·中期 對策 方向에 따른 積極的 實踐努力을 前提로하여 다음과 같은 對北戰略이 要望됨.

### (1) 北韓 核開發 沮止 戰略

우리가 이미 이른바 武裝解除(91.11~12)된 環境에서 相互 核査

察 規定마저 이룩되지 못한 立場에 있음은 國家安危 次元의 重大事  
라는 事實과 北韓의 查察拒否 名分이 貧弱하다는 點을 勘案하여 보  
다 積極的으로 對處해야 함

○ IAEA查察의 限界性を 考慮하여 周邊 4強國의 共助努力 및 UN  
安保理를 통한 強制 查察 그리고 南北 相互查察受容 促求 등을  
有機的으로 連繫시키는 國際壓力 強化에 盡力

○ 南北相互 核查察로도 核開發을 100% 沮止할 保障이 되지 못한  
다는 점 그리고 國際輿論 및 國際的 壓力이외에 별다른 壓力手  
段이 없게된 我國自體의 立場을 勘案하여 美·日의 隱密한 諒解  
하에 91.11~12의 宣言 以前으로 還元하는 措置 檢討

○ 北韓은 이미 소위 放射化學實驗室에서 소량의 플로토늄을 抽出  
했다고 시사했고 이것이 核再處理施設이 아니며 非核共同宣言 3  
條에 違背되지 않는다고 主張한 事實을 勘案, 우리도 核에너지  
의 平和的 利用을 위해 우리式의 放射化學實驗을 保有해야 함

※ 이는 平和的 利用을 위한 核에너지開發과 非核化를 위한 對北  
協商카드로도 有用

○ 相互 同時查察原則과 疑心 同時解消原則을 折衷하여 ‘相互疑心  
地域 同時查察原則’을 慎重히 檢討

○ 南北間의 相互查察을 受容·施行하기 전에는 美·北韓간에 현재  
이상의 어떠한 對話의 格上 등도 不容토록 하는 保障 措置 講究

- 群山·寧邊을 포함한 특정의 軍事施設을 對象으로 한 制限的인 相互査察을 提議해 올 때에는 이를 반대하고 攻勢를 繼續 強化
- 北韓이 保有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生産時期와 量 그리고 隱匿시킨 核物質과 施設을 追跡하는 데 注力

## (2) 人道的 問題 打開 方略

- 이 問題는 國際的 呼應도가 크고 國民情緒에도 십분 迎合하는 우리의 最大武器인 반면 北韓으로서는 開放問題 등과 關聯하여 가장 기피하는 分野임. 때문에 北韓은 구실만 있으면 이 問題 解決에 難關을 造成하고 對外弘報에 盡力하거나 우리의 切實한 要請에 便乘하여 強奪的 要求를 恣行하는 것임.
- 北韓側이 우리의 核問題 先決 主張에 離散家族問題 解決 不可를 운위하는 것은 「難關造成」策이고 이미 合意한 老父母 訪問問題 를 놓고 板門店 面會所 設置 등을 미끼로 李仁模 送還을 試圖하는 것은 強奪的인 要求이므로 이 問題에 대한 우리의 既存態度 는 全面的으로 再檢討되어야 함
  - 장차 板門店 面會所는 設置되어야 할 것이나 現段階에서는 北韓側 面會者의 意思表示 制限 및 硬貨調達窓口, 그리고 北韓 內 失鄉民에게의 影響 全無 등으로 인해 그 必要性이 絶실하지 않으며 南韓內 失鄉民들도 그곳을 통한 家族相面을 希望하는 者는 1%도 안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함

- 따라서 李仁模는 拉北된 동진호 船員 등과 相互 交換되어야 마땅하고 그 者의 送還問題를 老父母 訪問團내지 시급을 요하지 않는 板門店 面會所 設置問題와 連結시키는 것은 離散家族들의 心情을 度外視한 妥協을 위한 妥協努力에 불과 함
- 그러므로 離散家族 問題는 純粹한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國際輿論과 國民의 熱望噴出에 의해 積極的이고도 의연하게 對北壓力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出發해야 함
  - 일천만 離散家族再會推進委員會가 UN의 非政府民間機構에 加入(92.7)한 만큼 同 NGO를 통한 活動을 필두로 UN人權委員會, 國際人道法學會 및 世界 各國 人權團體 등에 즐기차게 呼訴하며
  - 離散家族 問題를 北韓人權實相과 直結시켜 國際적으로 糾彈하는 方策을 講究하는 한편
  - 마땅히 나서야 할 國會와 平統이 「決議」를 하고 宗教界가 앞장서서 對北 促求를 함은 물론 國內外的으로 大대의인 署名運動을 展開하여 對北壓力을 強化해야 함
- 그리고 이미 合意한 老父母 訪問 問題를 實現토록 促求(合意破棄 強力警告)하고 「서울·平壤」간을 南北의 道廳所在地 그리고 居住地(마을)에서 順次的으로 相逢토록 定例化 하는 한편 老父母의 위독시 및 死亡시의 訪問과 민속명절때의 故鄉(家族이 있는 곳) 訪問 그리고 生死確認·書信去來를 提議하는 등으로 附



屬合意書 이후 더욱 格下되어 가는 人道的 問題解決 努力을 強化시켜야 함

### (3) 經濟交流·協力 戰略

이 分野는 北韓에게 最小限의 牽制力을 行使할 수 있는 部分이기는 하나 北韓의 經濟·社會體制와 開放에 대한 기우로 인해 그들로서는 매우 選別的으로 件當 위주로 受容할 立場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이 經濟開放·改革으로 連繫될 可能性이 짙어질 경우 交流·協力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對南 經濟協力·交流는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대신 이를 통해 對日·對美 經協擴大를 企圖할 特性을 지닌 것이라 할 것임

○ 合作의 경우 北韓 勞動者를 我側이 管理하지 못하며 俸給도 北의 代理人 등을 통해 지불될 수 밖에 없으며 共同開發의 경우는 최소한의 地域에 限定되니 그 周邊地域 住民에 대한 統制는 더욱 強化되게 마련이고 商品 交流시에도 主要 製品에 대한 우리 商標 내지 原產地 表示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을 前提로 하도록 要求해 올 것임

※ 특히 主要製品에 대한 우리商標·原產地 表示없는 交流는 金父子의 權威를 높여주어 人民彈壓 持續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容認 불가함

- 따라서 豫想되는 이상의 制約事項에 대한 檢討와 함께 協商하고 交流·協力하더라도 民族利益이나 國際慣行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原則 아래 施行對策을 講究해야 하며 지난날과 같이 各種 事業을 構想段階에서 一方的으로 報道하거나 業體간 競爭的 進出行態를 보이는 것은 우리 內部葛藤 조장 내지 對北幻想만 조장하는 結果를 낳을 것임
- 다만 附屬合意書의 條項에 따라 相互協議하여 履行·實踐해 나가는 데는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 合作·共同開發의 경우 以北 出身 實業人들도 參與시켜야 함

#### (4) 改革·開放 誘導 方略

北韓의 95年度를 向한 對南策略과 北韓體制에 대한 短·中期 展望 등으로 볼 때 對北 改革·開放壓力을 加하지 않고 南北對話와 外交를 통해서 平和的 關係의 定着 및 統一로 指向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雙方間의 時間競爭에서 北韓에 의해 主導되는 對南革命 策略에 휩싸이게 할 可能性이 濃厚함. 그러므로 北韓에 壓力으로 作用되는 核問題 外에도 改革·開放誘導 努力을 本格化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對南攻勢보다 體制防禦에 注力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야 할 것임

- 北韓에 대해 「刺戟」을 피해야 한다는 對北 내지 會談戰略 次元의 認識은 오히려 그들의 固루한 狀況認識을 조장하는 結果로

되므로(그들은 革命情勢의 成熟度를 나름으로 판단하여 行動方策을 결정할 따름임) 가용한 모든 方法을 活用하여 改革·開放 促進 攻勢를 展開해야 함

○ 밑으로부터의 改革·開放 促進 攻勢

- 沿邊 등 中國 東北地區에 수개 據點을 確保하여 僑胞들로 하여금 多量의 우리 生必需品 등 商品과 함께 南韓 및 海外 消息을 北韓 住民들에게 直接 傳播·擴散시키는 組織的이며 體系的인 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
- 海外僑胞 및 國內 失鄉民등을 活用하여 北韓의 각 地域 住民들에 대해 人的·物的 延伸工作 展開
- 기타 可能하다면 物資 投入, 心理戰 등의 特殊活動 展開

○ 위로부터의 改革·開放 促進 攻勢는

- 中國을 위시한 第3國 指導級 人士로 하여금 北韓의 外交官·經濟人 其他 海外旅行 各界 高位人士들에게 中國式 모델 등으로의 路線 轉換을 說得
- 海外 및 國內의 對北 放送媒體를 통해 金父子와 모든 北韓 高位層 人士間的 離間策 講究 및 路線轉換의 不可避性을 說得 強調
- 海外의 北韓 前職 高官 등을 活用한 特殊活動 展開

## (5) 對南 瓦解 및 統一戰線 策略 沮止 方策

北韓의 對南 瓦解 및 統一戰線 策略은 6共들어 우리의 矛盾 葛藤이 더욱 深化된 데다 各種 合意書 採擇과 政府·國民의 안이한 對北 시각 등으로 인해 運動圈이 活動할 수 있는 合法的·反 合法的 空間이 造成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보다 組織的이고 果敢하게 展開될 국면에 들어선 것임. 따라서 우리는 矛盾·葛藤構造의 遠因·近因에 대한 치유책과 더불어 「動機」에 對處해 나가야 하며 그 基盤 위에서 北韓의 對南策略을 沮止시키는 데 注力해야 成果를 거양할 수 있는 것임

- 左翼勢力的의 온상으로 되는 각 分野의 矛盾·葛藤 構造와 그 分출현상에 대한 冷徹한 原因分析을 통해 效果的인 對策 方向을 樹立하고 과감하게 施行
- 社會全般에 蔓延된 실추된 社會氣風과 價値秩序의 혼동상을 바로 잡는데 盡力하면서 各界 各層의 健全活動을 開發 育成支援
- 南北韓의 汎民族 大會 推進勢力的의 可能的인 行動方策을 豫測하여 國民啓導와 效果的인 對應方策을 통해 금년도 4次大會를 粉碎하는데 注力
- 南北韓 共存틀을 마련하려는 듯한 속임수를 쓰는 北韓의 「聯邦制 統一」戰術 推進과 우리의 統一政策 및 戰略의 相異點을 分明하게 區分함은 물론 그들의 當面 目標와 戰術(連共政權 樹立,

合作實現 또는 「核」과 連繫된 政治·軍事攻勢 策略등)을 正確하게 認識시키는 弘報心理戰 強化로 國民의 安保意識을 鼓吹

○ 對話 關聯 其他 對策

－ 國家實體 否認, 對南暴力革命 路線, 對美 平和協定 締結論理 등과 關聯되는 北韓側 主張에 대해서는 各級 合意書에 의거하여 斷乎하게 對處하면서 逆攻勢 展開

－ 基本 合意書 發效 이후에도 持續된 武力挑發(92.5 中部戰線 공비 3명 浸透)과 「南韓 朝鮮勞動黨」間諜團 事件에 대해 再發防止策을 強力히 要求하는 한편 「救國의 소리」放送의 廢止를 要求

※ 內政干涉과 南北對話·南北合意書가 兩立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合意書에 의거한 南北對話 채널 이외의 非當局間 對話 推進策略에 強力히 對應

－ 各及 合意書의 履行對策에 있어 南韓에 反體制 내지 暴力 革命的 影響을 줄 수 있는 各種 提議와 行動에 徹底히 對處

－ 北韓에 의해 恣行된 지금까지의 對話의 中斷 및 冷却化 策略을 綜合 分析하여 我側 주도에 의한 對話 모습을 國民들에게 誇示할 方策 講究

－ 公安機關 및 要員의 發展的 整備 強化와 士氣振作策 講究



## Ⅱ. 金日成 新年辭를 통해 본 93年 南北對話 展望 및 對處方案

丁 世 鉉 (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1. 新年辭의 統一分野 內容 分析
2. 93年度 北韓의 對話姿勢 및 戰略 豫想
  - 가. 基本姿勢
  - 나. 南北間 主要懸案 問題에 대한 態度
    - (1) 附屬合意書 實踐問題
    - (2) 核問題
    - (3) 離散家族 및 李仁模 問題
    - (4) 南北 經協 問題
3. 우리의 對處方案
  - 가. 基本方向
  - 나. 南北對話 運營方案
    - (1) 核問題 先決原則 堅持·貫徹
    - (2) 會談原則 堅持 및 一貫性 維持
    - (3) 協商 主導權 確保
    - (4) 9次 高位級 會談 및 共同委 對策





## 1. 新年辭의 統一分野 內容 分析

- 金日成은 北韓이 그동안 「民族自主의 原則」에서 統一鬪爭을 벌여 왔다고 前提한 뒤, 92年の 「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의 發效를 “劃期的 進展”이라고 評價하면서, 韓國이 「基本合意書」履行을 妨害하고 T/S演習을 再開하려는 것은 反民族的 行爲라고 罵倒함으로써 對話中斷의 責任을 南側에 轉嫁하였음. 또한 金日成은 周邊國들이 北韓에 대하여 軍事的·經濟的 壓力을 가하고 있다고 評價함으로써, 北韓이 처한 外交的 孤立이 冷戰時代의 政策때문인 것으로 糊塗하였음.
- 이러한 情勢回顧 및 評價에 基礎하여, 金日成은 93年度 統一·對南 政策指針으로서 民族自主原則을 強調하면서 聯邦制統一方案을 再確認하는 同時에 有關國들의 對北韓 政策 轉換을 促求하였음. 즉, 金日成은 「民族自主의 原則」에서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 두개 制度, 두개 政府에 基礎한 聯邦制 方式」으로 祖國統一을 實現하기 위하여 繼續 努力할 것을 다짐하면서 民族自主의 立場에서 “誠實한 態度”로 나온다면 “過去를 묻지않고”民族의 統一問題를 “協議”할 것이며 統一을 위해 “함께 努力”할 것이라고 主張함으로써 非政府 次元의 統一論議 活性化 및 反政府 統一戰線 結成企圖가 있음을 示唆하였음.

- 金日成이 93年 新年辭에서 國家保安法 撤廢, 駐韓美軍 撤收 등 常套的 主張을 되풀이 하지는 않았지만 「民族自主의 原則」이라는 것 自體가 內容上 그러한 主張을 包括하는 것이며, 政治協商 會議, 大民族會議, 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등 會議方式을 되풀이 主張하지는 않았지만 「高麗聯邦制」라는 것 自體가 群衆集會式 會議方式을 前提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때는 過去 政治政勢次元에서 常套的으로 써오던 用語를 쓰지 않았다는 表面上의 理由를 根據로 93年度 北韓의 統一·對南政策 路線이 宥和的이라고 評價하거나 穩健해졌다고 評價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表面上의 變化는 深化된 國際的 孤立과 累積된 經濟難을 解決하기 위한 戰術的 제스처라고 보아야 할 것임.
- 金日成의 新年辭가 戰術性이 강하다는 것은 「民族自主의 原則」을 強調하면서도 「民族自主의 原則」과 理論上 背馳되는 「有關國의 姿勢是正」을 거의 비슷한 比重으로 強調하고 있다는 事實에서 立證된다고 할 수 있음. 즉 統一問題가 民族的 問題인 同時에 國際的 問題라고 規定하면서 有關國들이 “朝鮮問題를 公正하게 解決”하려는 立場에 서야한다고 主張한 것은 南北對話 再開 및 外形上의 關係改善을 對美·日 接近 및 修交協商 過程에서 「카드」로 活用하려는 意圖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2. 93年度 北韓의 對話姿勢 및 戰略 豫想

### 가. 基本 姿勢

- 韓半島 周邊情勢의 흐름으로 볼 때 93年에도 核開發 拋棄 및 南北對話의 意味있는 進展에 대한 對北壓力이 더욱 加重될 것으로 豫想되며, 新政府의 對北政策은 6共 1期에 비해 多少 強硬해져야 한다는 것이 衆論이라고 할 때, 金日成 新年辭는 韓國政府 및 有關國의 對北韓 政策을 探知하는 同時에 統一問題를 둘러싼 主導權 競爭에서 機先을 制壓하기 위한 布石으로서의 意味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北韓이 國際的 孤立을 脫皮하고 經濟難을 打開하기 위한 突破口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對美·日 接近과 體制維持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同時에 쫓아야 하기 때문에 北韓으로서는 93年에도 南北對話가 進展되고 있다는 印象을 內外에 浮刻시키는 線에서 그칠 뿐 南北關係에서의 實質的인 進展을 許容하지는 않으려 할 것임.
- 따라서 北韓으로서는 T/S訓練도 끝나고 韓國과 美國의 新政府의 對北政策 方向이 어느 程度 可視化되는 93년 5 - 6月頃 부터는 南北高位級會談 開催, 共同委 稼動등 南北對話 再開에 呼應해 올 것이나 北韓의 內部事情이 「基本合意書」 및 「附屬合意書」를 全般的으로 履行할 수 있는 狀況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에

南北關係의 實質的 進展은 可及的 遲延·忌避해 나가면서 그들의 經濟·外交的 實利追求에 寄與하거나 對南攪亂이 可能하다고 判斷되는 事業부터 選別的으로 履行하려 할 것으로 豫想됨.

- 이와 함께 北韓은 「當局間 對話와 民間級 對話의 竝行」論理에 따라 93年에도 8·15를 契機로 海外에서 第4次 「汎民族大會」를 開催하여 駐韓美軍 撤收 및 95年 統一完遂 鬭爭決意를 재다짐하는 등 內外의 連共勢力 糾合·擴散을 꾀함으로써 對南攪亂을 持續하는 가운데 對內體制統制 強化의 名分을 確保하려 할 것으로 豫想됨

#### 나. 南北間 主要懸案 問題에 대한 態度

- 北韓이 南北對話를 戰略·戰術的으로 活用한다고 할 때 南北 高位級會談 開催, 共同委 稼動 등을 契機로 南北對話가 再開·持續되는 경우 南北間 主要懸案 問題에 대해서 北韓이 취할 態度는 다음과 같이 豫想됨.

##### (1) 附屬合意書의 實踐問題

- 南北對話 再開時 雙方的 優先的 課題가 各 共同委別로 附屬合意書를 實踐段階로 進入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北側은 이의 卽刻的 實踐을 留保한 채 實利追求 側面에서 體制維持에 否定的 影響을 招來하지 않을 特定事業에 대해서만 「特例措置」라는 名分으로 呼應할 것임.

- 이를 위해서 北側으로서는 各 共同委別로 附屬合意書 實踐을 위한 「單一施行合意書」를 또다시 作成해야 한다고 主張하거나 각 「附屬合意書」에 「附記事項」으로 處理된 南北間의 未合意事項 부터 優先 協議하여 確定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方式으로 南北間 既合意 事項의 履行을 遲延시키려 할 可能性이 있음.
- 이처럼 北側은 和解 및 不可侵分野에 있어서는 未合意事項을 根據로 既存의 對南戰略을 固守할 수 있는 與件을 最大限 造成하려 하는 한편 經濟·交流協力 分野에서는 經濟難 解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實益을 얻기 위해 積極的인 姿勢를 취할 것으로 豫想됨. 이와 관련 北側은 共同委 稼動과 함께 第 8次 南北高位級 會談(92.9 平壤)에서 示唆한 바 있는 「年次別·分期別 事業計劃」을 提示할 것으로 豫想됨.

## (2) 核 問 題

- 北側은 過去 盟邦인 中·러의 對韓 關係改善으로 말미암아 安保 外壁이 事實上 무너졌다는 危機意識 때문에 體制維持의 가장 確實한 手段으로서 核武器 保有에 執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北側으로서는 IAEA의 査察受容을 名分으로 하여 對北 國際的 壓力을 稀釋시켜 나가면서 南北 相互査察 受容에는 當分間 消極的으로 나올 것으로 豫想됨.
- 그러나 北側이 對美·日 接近過程에서 劃期的인 進展의 契機를 造成할 수 있다고 判斷할 경우에는 軍事基地를 除外한 核施設에

대한 示範查察 性格의 非定期 一般查察에 劇的으로 呼應할 可能性도 없지 않음.

### (3) 離散家族 및 李仁模 問題

- 北側은 離散家族의 相逢 및 交流가 頻煩히 이루어질 경우 北韓 住民들의 思想意識과 對南觀이 크게 變質·動搖될 것을 憂慮하고 있기 때문에 離散家族의 自由往來에는 극히 否定的인 姿勢로 一貫할 것으로 보이나 負擔이 相對的으로 적은 板門店 面會所 設置問題에 대해서는 李仁模 送還問題와 連繫·妥結하려는 立場을 繼續 固守할 것으로 豫想됨.
- 한편 北側이 對外的으로 南北關係의 進展을 標榜하고 南韓住民의 對北警戒心 弛緩과 國家保安法 撤廢 輿論造成에 有利하다고 判斷될 경우에는 이미 合意한 바 있는 老父母 訪問團事業問題를 藝術團 交換과 連繫시켜 急進展시킬 可能性도 없지 않음.

### (4) 南北經協 問題

- 北韓은 南北當局間의 正常的 通路를 통한 經濟交流·合作보다는 韓國內 民間 大企業과의 選別的인 「個別合作」을 推進하는데 力點을 들 것임.
- 그러나 西方과의 對外經濟協力 努力이 限界에 부딪치고 經濟難이 加重될 경우에는 自救策의 一環으로 南北韓 實物 經濟交流에 積極的인 姿勢를 보일 可能性도 있음.

### 3. 우리의 對處方案

#### 가. 基本方向

- 새로 出帆하는 新政府는 任期中 (93.2 - 98.2) 南北關係를 實質的으로 進展시키고 平和統一의 기틀을 다져야 할 課題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新政府 1次年の 對北政策 및 對話戰略路線은 매우 重要的 意味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新政府의 93年 對北政策 및 對話戰略은 그 自體로서 獨立的이기 보다는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면서도 既存의 對北政策基調와 對話戰略의 骨格을 維持·發展시키는 方向에서 再定立되고 推進되어야 할 것인 바 93年 對話戰略을 樹立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事項에 留意하여야 할 것임.
- 첫째, 지금까지 「協議段階」 또는 「宣傳次元」에 머물러있었던 南北關係가 93년부터는 「實踐段階」 또는 「行動次元」으로 轉換된다는 認識하에 對北協商 姿勢面에서 보다 慎重해 질 必要가 있음.
- 둘째, 現在 北韓이 直面해 있는 經濟·外交的 局面 打開의 時急性을 勸案할 때 南北對話의 需要는 우리側보다 北側이 더 切實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側이 서둘러 讓步함으로써 北側의 姿勢是正·轉換을 誘導할 수 있는 機會와 leverage를 스스로 喪失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셋째, 過去 南北對話 經驗에 비추어 볼 때 우리側이 對北包容

次元에서 北側의 要求를 受容하더라도 北側으로서는 댓가를 提供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다른 讓步를 強要해왔던 事實을 直視하여 新政府下에서는 南北對話의 初動段階에서부터 分명한 原則을 提示하고 그 原則을 一貫되게 固守하는 것이 오히려 南北間 懸案問題를 우리側의 企圖대로 解決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認識을 確固히 할 必要가 있음. 예컨대 北側이 南北對話 再開霧圍氣 造成을 口實로 삼아 T/S訓練中止, 拘束者 釋放 및 復權, 國家保安法 撤廢 등 이른바 前提條件을 舉論하는 경우에는 우리側도 北韓의 人權狀況 改善, 改革·開放, 民主化 問題를 正面으로 舉論하는 正攻法으로 맞대응해 나갈 姿勢를 誇示하는 것도 考慮할 必要가 있음.

- 요컨대 北韓의 現體制가 存續되는 한 北韓의 對南政策이 本質적으로 變化하리라고는 期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北韓體制가 急變(崩壞 등)하는 경우에 이를 堪當할 수 있는 能力이 우리側에도 아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現實을 冷徹하게 直視하여 短期的 成果 創出을 위해 성급하게 對處하기 보다는 서서히 北韓의 改革·開放을 促進시킨다는 方向에서 南北關係의 秩序를 構築하는데 1年을 十分活用해 나가야 할 것임.

## 나. 南北對話 運營方案

### (1) 核問題 先決原則 堅持·貫徹

- 北韓의 核問題는 民族의 大慘禍를 惹起할 수 있는 問題일 뿐 아



나라 政府 스스로 北韓의 核問題가 主要 事案임을 對內外的으로 持續 表明해온 만큼 이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 南北經協등을 進陟시킨다면 政府의 立地가 매우 弱化될 것인 바 政府로서는 核問題 解決을 「基本合意書」履行·實踐의 先決原則으로 堅持·貫徹해야 할 것임

- 다만 93年 1~2月中 IAEA의 6次 對北臨時查察 結果 核 燃料棒 問題 解釋上的 變化가 不可避해지고 따라서 韓·美間 政策調整이 必要할 경우에는 그 內容을 對內外的으로 분명히 說明함으로써 問題解決을 매듭지어야 할 것임
- 특히 美·日과 充分하고 緊密한 事前協議없이 우리側만 柔軟한 姿勢를 보이다가 美·日の 反對에 부딪쳐 다시 強硬으로 旋回하는 愚를 또다시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임.

## (2) 會談原則 見地 및 一貫性 維持

- 客觀的인 情勢의 흐름을 볼 때 時間은 우리편이기때문에 所期の 成果를 早期에 導出하지 못할지라도 基本目標 達成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外形的 成果만 導出하고 結果的으로는 北側의 宣傳論理를 強化시켜 줄 可能性이 있는 對北 讓步를 止揚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和解·不可侵 관련 合意事項이 誠實히 履行되고 相互 政治的 信賴가 構築될 때까지는 交流·協力部門의 對北 接

觸窓口를 政府當局으로 一元化한다는 既存立場을 堅持함으로써 「當局間 原則合意 → 民間接觸 活性化」라는 基本原則을 固守할 必要가 있음.

- 北側의 窓口多元化, 駐韓美軍 撤收, 保安法 撤廢, 政治犯 釋放 · 復權 등 內部問題 干涉型 主張에 대해서는 對南宣傳 · 煽動 中止, 黨規約上的 赤化路線 拋棄, 刑法改正, 北韓住民의 自由 · 人權保障 등 對北反擊性 主張을 堂堂하게 提起함으로써 北側이 오히려 守勢에 처하도록 할 必要가 있음.
- 한편 우리側으로서는 對北 協商原則 및 細部指針을 確立하여 各級 會談에서 우리側 主張을 一貫性있게 提起 · 貫徹함으로써 우리側 會談代表間의 見解差異를 惡用하고자 하는 北側 企圖를 源泉封鎖하는 同時에 우리側의 協商力을 強化, 主導的 立場에서 對話를 推進해 나가야 할 것임.

### (3) 協商 主導權 確保

- 北側案의 不當性を 指摘하는 등 守勢的 立場으로 一貫해온 既存의 會談運營 方式에서 脫皮, 汎國民의 支持를 背景으로한 總體的 對北 協商戰略을 바탕으로 事案別 우리側 立場을 確定하여 會談에 임함으로써 우리側案을 中心으로 會談을 運營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必要하다면 우리側은 「基本合意書」作成過程에서 讓

步하였으나 南北關係 改善의 目標와 一致하고 名分이 서는 重要 事案을 優先 討議課題로 再設定하여 우리側案에 대한 討議中心의 會談運營을 試圖해 나가는 同時에 「附記事項」討議方式으로 會談을 遲延시키려는 北側의 企圖를 封鎖해나가야 할 것임.

#### (4) 9次 高位級會談 및 共同委 대책

- 「南北相互核査察規程」이 採擇되지 않고 北側의 誹謗·中傷이 持續될 경우 5~6月頃 北側이 南北對話를 提議해오더라도 對話斷絶이 北側의 態度變化를 誘導할 수 있다는 점을 勘案하여 限時的으로 條件附 南北對話 再開意思를 表明할 必要가 있음.
- 南北對話再開時에는 核問題 解決을 最優先的으로 舉論하는 한편 「特殊關係」規定에 대한 解釋 및 「附記事項」의 早速한 解決을 促求함. 이를 위해 基調發言에서 우리側의 再定立된 立場을 明白히 表明하고 「附記事項」관련해서는 「附屬合意書」의 修正·補充 問題를 提示함.
- 한편 部門別 均衡推進 原則에 立脚한 「段階的 履行計劃」을 樹立·提示함으로써 우리側의 機能主義的 接近方法上的 脆弱點을 스스로 除去하는 同時에 北側의 選別的인 履行戰略에 對處해 나가야 할 것임.



### Ⅲ. 金正日 論文을 中心으로 본 北韓의 政治路線과 南北關係

梁 好 民 (翰林大 教授)



## I.

1993年 1月 25日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共同委員長 會談은 決裂되고 말았다. 그 根本原因은 核問題에 있다. 南韓側은 北韓側이 맹렬하게 反對해온 93年 팀스피리트訓練을 「北韓側이 南北 相互核査察을 拒否하고 있는 狀況에서는 再開하지 않을 수 없다」고 通告함으로써 會談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會談이 決裂됨에 따라 南韓側은 이 訓練을 오는 3月 中旬에 約 10日間 實施할 것이라고 北韓側에 通告했다. 이것을 契機로 南北韓 관계는 急速히 더욱 惡化될 것이 明白하다.

回顧컨대 91年 12月 13日 가가스로 採擇되었던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즉, 略稱 「基本 合意書」와 그리고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이 發效된 것은 92年 2月 19日 第 6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였다.

이러한 解氷氣運에 呼應하듯이 91年 12월 18日 北韓은 62km<sup>2</sup>에 이르는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 設置案과 淸津 自由貿易港案을 公表했다. 이어 92年 5月 8日에는 南北連絡事務所 設置와 軍事,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交流·協力등 3個部門에서의 共同委員會 構成에 合意했다. 다시 92年 9月 17日 南北은 「和解」, 「不可侵」 및 「交流·協力」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3個部門의 「附屬合意書」를 採擇·發效시켰다.

이로써 南北韓 사이에는 近 半世紀에 가까운 冷戰狀態가 解消되고 北韓은 開放·改革으로 經濟 政策의 方向을 바꾸고 있다는 錯覺을 일으킬만 했다.

韓·美 軍事 當局者들은 南北對話의 순조로운 進行을 促進하기 위하여 92年 1月 8日 92年 팀스피리트 訓練의 中止를 發表했던 것이다.

이제 韓半島에서는 모든 難關을 克服하면서 軍事的危機가 사라지고 相互信賴 속에서 各種 交流와 協力이 活潑하게 實現되며 平和統一의 氣運이 바야흐로 造成되고 있는 듯이 보였다.

한편 對外的인 面에서도 92年 8月 24日 懸案인 韓·中修交가 實現되고 北韓의 對 美·日 接觸이 操心스럽게 間歇的으로나마 이루어 짐으로써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關係는 재빨리 好轉되고 있다는 印象을 퍼뜨렸다. 그러나 이러한 一連의 現像들은 어디까지나 皮相的인 것에 不過했다.

南韓은 民主化의 要求속에서 政治·社會面에서 劃期的으로 變化하고 있었지만 北韓의 境遇는 많은 사람들의 希望的·樂觀的 觀測에도 不拘하고 이데올로기·政治體制·經濟制度·社會構造에서 變化는 커녕 變化의 可能性을 繼續 封鎖시켜 나갔다.

北韓이 衣裳·헤어스타일·노래와 춤 등 生活文化에서는 多樣性을 보여왔고 南北對話와 外交活動에서도 戰術的인 伸縮性을 發揮한



것을 事實이다. 그러나 政治體制의 變化와 이데올로기의 彈力性을 가져온 根本的 變化는 결코 아니었다.

北韓側은 南北基本合意書가 採擇되기 以前에도 그 以後에도 大韓民國 大統領에 대해 「事大賣國徒黨」, 「軍事파쇼獨裁」, 「民主主義의 民字도 모르는 暴君」, 「피에 굶주린 殺人魔」, 「醜惡한 親美事大 賣國奴」, 「美國의 特等사냥개」등 極惡한 辱說과 誹謗宣戰을 잠시도 中斷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간 南北間에 採擇, 發效된 모든 合意書와 宣言등은 南北間의 對話에서 到達한 妥協의 產物이 아니라 南北朝鮮人民들이 南朝鮮의 「反統一勢力」이며 「分裂主義者」들인 「傀儡徒黨」에 대한 鬪爭에 의하여 爭取한 成果라고 宣戰해 왔다. 따라서 南北對話의 表面上의 和解雰圍氣의 밑바닥에는 차가운 冷戰의 底流가 흐르고 있었다. 北韓側은 南北對話를 和解에 이르는 過程이 아니라 對南政治鬪爭의 한 方式으로 보아왔던 것이다.

그리하고 그들은 駐韓 美軍의 徹收, 國家保安法 撤廢, 良心囚 釋放등 南韓側이 受諾할 수 없는 要求를 執拗하게 들고 나왔다.

92年 對話가 進行되는 동안 北韓의 核開發疑惑이 俄然 國際적으로 浮刻되었고 그 위에 92年 10月 6日에는 北韓이 오랫동안 工作해온 세칭「南韓 朝鮮勞動黨事件」이라는 地下黨 組織活動이 發表되어 世上을 驚愕케 했다.

北韓의 核開發 疑惑에 관해서는 國際的 壓力에 의하여 부득이 國際原子力構成의 查察을 피할 수 없어 5次例나 받았다. 그러나 「韓

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에 엄연히 明示되어있는 南北韓間의 相互査察은 絶대로 수락하려하지 않는 立場을 完강하게 고수해 왔다.

이러한 北韓側의 冷戰激化 政策은 南韓에다 應당한 對抗措置를 불려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92年 10月 8日 韓·美 安保會議는 北韓側이 相互 核査察을 拒否할 때는 93年 팀스피리트 訓練을 再開 할 用意가 되어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11月 初旬에 實施키로 되어 있는 「화랑」·「92독수리」訓練도 準備하고 있었다.

北韓側은 이것을 「北을 攻撃하기 위한 무모한 戰爭演習」이라고 誹謗하면서 11月 3日 南北和解·軍事·經濟·社會文化 共同委員會 北韓측 委員長들의 名義로 聯合 聲明을 發表, 그런 軍事訓練의 決定을 卽刻 撤回하라고 要求했다. 또한 11月 5日부터 1週日 間隔으로 열리게 되어있던 以上 4個 共同委員會議들을 拒否한다고 發表했다. 같은날 北韓外交部는 聲明을 통해 팀스피리트 訓練을 「永遠히 없앨 때만 國際原子力機構의 査察을 受諾할 것」이라고 宣言했다. 이로써 會議들은 유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러한 北韓側의 南北 相互核査察 拒否와 日本側이 要求하는 在北抑留日本人 李恩蕙의 實存 否認으로 92年 11月 5日 第 8次 「朝·日 會談」도 決裂되었다.

## II.

本 論文에서의 目的은 이상 南北關係의 展開過程의 分析이 아니  
라 그것에 影響을 준 北韓의 政治路線이다. 韓半島 事情에 어두운  
사람은 韓·美側이 北韓을 자극하는 一切의 軍事訓練을 廢棄하고  
相互 核査察에서도 北韓에 약간 讓步하는 宥和政策을 택한다면 南  
北關係는 急速히 和解와 親善과 協力과 그리고 결국은 平和統一의  
方向으로 好轉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이 수십년동안 부단히 強調해온 「祖國統一의 基本原  
則」과 「黨의 革命的 原則」이라는것을 고수하고, 이것을 토대로 확  
립한 政治路線이 바뀌지 않는한 南北關係의 質的變化는 일어날 수  
없게 되어있다. 北韓에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절대, 無誤謬의 神聖  
不可侵한 黨의 唯一한 統治 이데올로기요 國家의 指導的 指針이 되  
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金正日是 이것을 解釋하기를 「主體思想은 우리黨의 唯一한 指導  
思想」이며 「새로운 時代를 代表하는 勞動階級の 가장 完成된 革命  
思想」이라고 한다(92.10.10). 따라서 北韓에서는 물론이요 統一된  
祖國에서도 主體思想 이외의 다른 思想, 이를 떤면 自由民主主義  
思想은 용납될 수 없으며 主體思想은 「가장 完成된 革命思想」이니  
만큼 더 이상 發展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요컨데 그들에 있어서  
主體思想이란 人類가 도달한 最後의 眞理다.

따라서 主體思想이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남아있는 한 思想의 多樣性を 전제로한 民主主義 統一은 不可能하다. 金正日은 92년 1月 30日에 그가 發表했다는 談話, 「社會主義建設의 歷史的 敎訓과 우리黨의 總路線」에서 思想의 自由, 多黨制, 所有의 多樣性を 全面的으로 否認했다. 그의 強調에 의하면 이런것들은 個人主義와 自由主義에 기초한 「資本主義 社會의 政治方式」이라는 것이다. 그는 社會主義를 포기하고 資本主義를 끌어들이지 않는 한 思想의 自由와 多黨制는 絶대로 許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 社會主義 社會에서 思想의 自由와 政治에서의 多黨制를 許容하는 것은 결국 社會의 기초를 허물고 人民의 政權을 顛覆하기 위한 反革命的 策動에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됩니다. …… 歷史的 經驗은 多黨制의 民主主義를 許容하여 反社會主義 政黨들의 活動이 保障되면 階級의 원썩들과 反動들이 머리를 쳐들고 反社會主義 策動을 감행하여 勞動階級의 黨을 내쫓는 데로 나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金正日의 이러한 말은 北韓에서 言論과 政治活動의 自由를 용인하고서는 絶대로 人民의 支持를 얻어 政權을 維持할 수가 없다는 自信의 喪失을 正直하게 告白한 것이다. 또한 이 말은 全體主義的 金父子 獨裁體制를 영구히 고수하겠다는 宣言이기도 하다. 그들은 北韓의 政治 體制를 「人民大衆 中心의 우리식 社會主義」라고 禮讚한다. 여기서 「人民大衆」이란 것은 實際에 있어서는 金日成父子 一派

를 가르키는 代用語에 불과하다. 金正日에 의하면 人民大衆은 「革命의 主人」이요, 黨은 「人民大衆의 核心部隊」며 首領은 「人民大衆의 意思를 구현한 最高腦髓」라고 規定하면서 黨 - 首領 - 人民大衆은 하나의 「生命統一體」라는 無神論的 三位一體說을 宣傳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절대로 重要的 것은 首領이다. 따라서 모든 黨員은 「首領님을 목숨으로 옹호 保衛하는 忠誠스러운 決死隊가 되어야 한다」는 宣傳을 벌써 20年 전부터 지금까지 벌여왔다. 히틀러를 無色케 하는 新版 「指導者 原理」를 그들은 北韓社會에서 強行할 뿐만 아니라, 祖國統一도 이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한다는데 南北對立의 根本的 原因이 있다.

이상과 같은 金日成父子의 獨裁體制 이데올로기는 南北高位級會談이 열린 以後에도 계속 強調되어 왔다. 그 重要的 原因은 東歐圈의 崩壞와 蘇聯의 解體, 中國共產黨의 世紀的 變化에 대한 충격 · 恐怖感 · 孤立感에서 찾을 수 있다. 1990年 때만해도 金日成은 共產圈의 崩壞에 대해 그 原因을 주로 外部에다 돌리면서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이 「平和的 履行戰略」, 즉 平和的 顛覆의 方法으로 社會主義 나라들을 內部로부터 瓦解시키려 한다고 非難하고 이에 同調한 「現代 修正主義者」와 「社會主義 背信者들」을 攻擊했다. 그러면서 世界가 「自主의 길」, 「社會主義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은 「歷史의 必然的 法則」이라고 表面上으로 泰然한듯이 自己의 主觀的 信念을 토로했다(1990. 6). 1992年 1月 「新年辭」에서도 그는 같은

脈絡에서 「社會主義의 挫折된 事實을 놓고 그것이 마치도 社會主義에 대한 資本主義의 勝利이고 社會主義의 終末을 意味하는것 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歷史發展의 合法則性에 대한 無知를 들어내 보인 것」이라고 자기의 獨斷的信念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帝國主義者들의 戰略的 目標」은 「社會主義를 完全히 抹殺하고 殖民地體制를 復活시켜 帝國主義的 世界支配를 實現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目標을 實現하기 위하여 「帝國主義者들은…軍事 政治的으로 壓力을 가하고 威脅하며 經濟的으로 買收하고 예측시키며 思想·文化的으로 타락시키고 分裂·瓦解시키는 手法에 매달리고 있다」고 美國을 攻擊했다.

東歐·蘇聯·아프리카 등에서 共產主義 體制가 잇달아 무너진 세칭「도미노 現象」의 內部的 原因을 제 나름대로 分析하면서 金日成의 外部的原因에다 添加한 것은 그의 後繼者 金正日이었다.

그는 內部的 要人이 여러 나라들의 黨이 「主體를 세우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그 要因의 갖가지 實例를 列舉하고 있다. 즉, 革命的 眞髓를 거세한 「現代 修正主義」·集團主義의 弱化·思想的 純潔性 喪失에서오는 社會主義 制度의 變質·指導者의 資質(「빛나는 예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德性」등) 不足·官僚主義와 같은 낡은 事業方法·부르조아 自由化 바람의 浸濕·幹部들의 自己保身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가 무엇보다도 強調한 것은 「부르조아」反動思想의 害毒性的 肅清과 「異質的인 思想潮流(宗派主義,

反革命的 思想潮流등)와의 鬪爭」등이다. 이러한 思想鬪爭을 통하여 黨內에서 「思想과 領導의 唯一性」을 保障함으로써 「黨은 首領의 領導 밑에 하나와 같이 思考하고 움직이는 必勝不敗의 戰鬥的 隊伍를 強化 發展시킬것」을 거듭 督勵하고 있다.

한마디로 金正日是 北韓의 全體主義的 父子獨裁 權力을 계속 強化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超硬直性は 南北間의 각종會談, 여러部分의 含意書採擇, 金達玄의 서울訪問(92.7), 南浦調查團의 訪北, 統一音樂會, 南北統一 蹴球大會의 相互交換(90), 單一팀 構成에 의한 世界競技大會에의 出戰(91) 등을 통하여서도 결코 緩和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可能性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經驗은, 南韓이 줄곧 追求하여온 脫 이데올로기의인 機能主義的 接近方法으로는 北韓의 門戶를 開放하고 政治體制를 民主化시켜 權力的 變質을 유도하기가 절대로 短期的으로는 期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南北의 接觸과 交流와 開放이 進展되면 될수록 남으로부터 불어들어올 自由의 바람에 의하여 閉鎖的 獨裁體制가 무너질 것을 심각히 憂慮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철통같은 思想的·制度的 방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1年여 동안에 나타난 그들의 政治路線의 特徵이다. 흔히 南韓에서는 「革命 第1世代」가 지나가면 北韓의 權力體制와 社會生活에 상당한 變化가 일어날 것은 豫想하고 있다. 이것은 可能的한 일이다. 金正日도 이에 대해 「搾取와 壓迫을 받아보지 못하고 苦生도 해보지

못한 새世代들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사람들속에서 점차 革命性이  
얕어지고 安逸 해이한 現像이 나타날 수 있다」는 不安感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이에대한 事前防備策으로 黨을 強化하고  
그 「領導的 役割」(獨裁)을 높이며 黨員들과 人民들을 「革命的으로  
敎養하기 위한 事業을 더욱 積極的으로 벌일 것」을 促求하고 있다.

지난 數年間 北韓의 經濟가 에너지와 食糧不足으로 破局的狀態에  
이르렀다는 것은 더이상 祕密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南韓과의  
經濟交流, 美·日로부터의 資本과 技術導入으로 難局을 打開하려는  
데 큰 關心을 表明해왔다. 그리하여 92年 10月 5日에는 外國人投資  
法과 合作法등을 發表했다. 그러나 東歐圈에서처럼 資本主義 나라  
들과의 接觸, 交流의 확대가 「修正主義」를 誘發하고, 帝國主義者들  
이 이것을 利用하여 社會主義制度를 平和的으로 顛覆함으로써 資本  
主義의 復活의 길을 열어주리라는데 대하여 金日成 一派는 큰 恐怖  
를 느끼고 있다.

레닌은 10月革命後 불세비키政權에 대한 資本主義國家들의 經濟  
協力에 대해 「資本主義帝國의 經濟人들은 자기들의 목을 조일 끈을  
꼬아 팔아먹는 쓸모없는 白痴」라고 멸시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  
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이 나라들과 外交關係를 가지면 이 白痴  
들은 우리들을 밀어주며 門을 기꺼이 널리 열어준다. 우리들의 工  
作員은 外交官, 文化使節團 또는 商人의 假面을 쓰고 이 문을 통해  
資本主義國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目的을 達城하는 것



이다」라고 했다. 오늘의 金日成은 레닌의 이 戰術을 거꾸로 解釋하여 北韓이 西方世界에 잘못 문을 열었다가는 그 문을 통하여 西方의 工作員들이 들어와 北韓의 共產主義를 顛覆하려고 劃策할 것이라는 不安感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北韓이 堅持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政治 第一主義요, 革命至上主義이다. 따라서 經濟의 다급한 必要性 때문에 革命路線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는다. 金正日은 많은 社會主義 나라의 집권자들이 「經濟建設만 하면 萬事가 解決되는것 처럼 생각하고…經濟建設 一面만 내세우면서」 黨員들과 人民들을 革命的으로 教養하는 事業을 소홀히 했다가 亡했다는 것을 殷鑑으로 삼고있다. 그리하여 그는 「現代修正主義」가 아무리 그 正體를 巧妙하게 위장하여도 「그 反動的 本質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철저히 反對排擊하여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資本主義는 絶對惡이며 社會主義는 絶對善이다. 이러한 極端的 圖式은 北韓의 統一 政策의 大前提다. 따라서 92年 4月 9日에 改正發表된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에는 모든 「生産手段은 國家와 協同團體만이 所有한다」(第20條)고 規定되어 있고, 그 協同團體의 所有마저 점차로 「全 人民的 所有」(國家所有)로 轉換시킨다고 했다(第23條).

生産수단의 個人 所有는 禁止되어 있고 심지어 中國에서 내세우고 있는 「社會主義的 市場經濟」란 말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工場, 土地, 施設의 社會的國有化를 宣言한 것이며, 따라서 아무리

南韓·美國·日本등으로부터 資本, 施設, 技術, 經營方法을 導入해도 北韓은 絶대로 部分的으로나마 私經濟의 要素를 容인하지않겠다는 決意를 表明한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政權이 破綻에 直面한 經濟를 再建하기 위하여 中國처럼 資本主義的 要素, 市場經濟制度를 導入하리라고 期待한다는 것을 幻想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金日成은 93年度 「新年辭」에서 「主體의 革命的 原則과 路線」은 확고하며 「變함이 없다」는 것을 再強調하고 1965年 이래로 主張해 온 「思想에서 主體,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國防에서 自衛」의 原則을 되풀이 提唱했다. 그리고 70年代 이래로 公式化 되어온 「3大革命」을 힘차게 벌어나갈 것을 促求했다. 또한 그는 62年 12月에 採擇한 「4大軍事路線」의 方針을 다시 들고 나와 이것을 철저히 貫徹하여 「革命武力」을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했다.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人民의 宿望을 實現하는것」을 社會主義 建設의 重要한 目標로 내세웠다. 이 目標은 벌써 29年전에 設定했고 92年度「新年辭」에서도 들고나왔던 것이다. 그의 主張들은 구태의연하며, 그의 말대로 「變함이 없다」. 이것은 變遷하는 世界歷史의 大潮流에서도 北韓의 政治路線에는 하등 變化가 없고 金日成의 冷戰的思考는 이미 動脈硬化症에 걸려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金日成의 「主體의 革命原則」에서 對南政策上的 核心은 「民族自主의 統一原則」이다. 그는 93年 「新年辭」에서 「南北基本 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의 發效로 統一이 가까와온 오늘날 南韓側이 그 履行을 방해하고 挑發적인 팀스피리트 訓練을 再開하려 하고 있다고 모든 責任을 南韓에 전가했다. 그리고 이 訓練은 「民族自主의 原則을 否定하고 外勢의 힘에 의거하여 不純한 目的을 實現하여 보려고 하는 反民族的行爲」라고 斷罪한다. 그의 원수가 「美帝」와 이에 隸屬되어 있는 「南朝鮮 괴뢰도당」임에는 變함이 없다. 이러한 敵對意識에서 그는 「우리民族이 바라는 統一은 民族의 自主性 實現이지 남에게 隸屬되어 살기위한 統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무수히 되풀이해온 主張을 다시 반복했다.

…民族自主의 原則은 讓步할 수 없는 祖國統一의 基本原則입니다. 이 原則을 否定하면서 對話요 統一이요 하는것은 民族에 대한 우롱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黨과 共和國 政府는 앞으로도 民族自主의 原則에서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 두개 制度, 두개 政府」에 기초한 聯邦制 方式으로 祖國統一을 實現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朝鮮 勞動黨의 힘만으로 金日成式의 統一은 實現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들이 利用할수 있는 南韓의 「民族自主勢力」이 必要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南韓에서 누구든지 「民族自主의 立場에서 …誠實한태도로 나온다면 過去의 잘못을 묻지 않고」統一의 偉業을 實現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寬大한 言辭를 弄하고 있다. 그의 統一 戰線戰術은 집요하고 精力的이다. 그는 91年 8月 1

일에 發表한 「談話」에서 「부르조와 民族主義」와 「진정한 民族主義」(自己의 父親이 그代表)를 區別하고 「진정한 民族主義는 곧 愛國主義」라고 規定하면서 「나는 共產主義者인 同時에 民族主義者」라고 從來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했다. 그리고 오늘의 南北에 一時的으로 形成된 制度上的 差異와 思想과 理念의 差異보다는 「民族共同의 利益이 더 크다」고 했다. 순진한 民族主義者들을 매혹케 할만한 發言이다. 그러나 그 「民族共同의 利益」이 무엇인가를 決定하는 基準은 그 自身이요, 主體思想이다. 그러한 「民族共同의 利益」을 實現하기 위하여 그는 駐韓美軍 撤收, 國家保安法 撤廢, 南朝鮮社會의 「民主化」와 「自主化」를 위한 鬭爭에 蹶起할 것을 南韓의 野黨, 社會團體, 宗教人, 海外同胞들에게 呼訴하면서 反美救國 統一戰線強化에 정력을 쏟아왔다. 그리고 「民族反逆者를 빼놓고 모든사람들을 대담하게 包攝하는 原則에서 民族大團結을 이룩해 나가야한다」고 鬭爭方向을 提示했다. 이것도 그가 解放直後부터 추구해온 政治路線의 극히 主要한 部分이다. 金日成一派는 民族을 否認하는 것이아니라 소리높이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자기식의 「主體形 共產主義者」만이 民族의 領導者가 될수있고 자기들은 主體思想과 獨裁權力에 의하여 民族全體를 改造하고 이끌어 나갈 政治的·道德的 權利가 있다는 幻想에 빠져 있는 것이다.

### Ⅲ.

이상에서 우리는 南北高位級會談이 시작된 90年 9月 이래로 革命의 이데올로기를 礎石과 骨幹으로하여 形成되고 固守되어온 北韓의 政治路線을 概觀하였다.

그들의 政治路線은 本質的內容과 目的에 있어서 30年前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體系를 技巧化하면서 細部를 補完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 특징은 南北의 和解·信賴·協力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大韓民國의 타도를 위하여 最大限의 對南 平和攻勢를 펴는데 있다. 그런 攻勢앞에서 南韓이 一定한 對應措置를 取하게되자 南北間에는 表面上의 解氷분위기에도 불구하고 冷戰狀態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南韓에 대해 冷戰을 繼續하지 않고서는 金日成 父子는 北韓內的 철통같은 統制와 強固한 獨裁體制를 維持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점에 悲劇이 있다. 그리하여 韓半島에는 여전히 戰爭은 아니지만 平和도 아닌 對峙狀態가 繼續되고 있다. 이것이 南北關係의 根本的 改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南北對話를 希望이 없다고 拋棄할 수 없다. 戰爭을 覺悟하지 않는 한 接觸과 對話는 不可避할 뿐만아니라 必要한 것이다.

北韓은 完全에 가깝도록 外部로부터의 情報를 遮斷하면서 閉鎖政策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門을 잠그고 있을수는없

다. 金日成 以後 政權이 바뀌고 世代가 交替되면 반드시 變化는 을 수 밖에 없다. 金日成一派가 쌓아올린 철벽같은 反民主의 장벽이 오래갈수는 없다. 獨裁體制 內部的 根本的 矛盾에 눈을 뜨는 黨員들과 人民大衆은 外部로 부터 스며들어오는 自由와 民主主義思潮에 자극을 받아 언젠가는 그장벽을 허물어 버리게 될 것이다.

「社會主義의 優越性」과 그 「必勝不敗」를 외치면서 閉鎖政策으로 一黨獨裁의 永久化를 꿈꾼 共產主義者는 비단 金日成父子 뿐만이 아니다. 東獨의 호네커, 체코슬로바키아의 후사크, 불가리아의 지프코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알바니아의 라미즈알리에, 蒙古의 체덴발 등 스탈린의 後裔들은 모두 89年以後 權座에서 쫓겨났다. 永久不滅의 獨裁政權이란 歷史上 存在한 일이 없다.

北韓의 一般大衆은 外部世界의 事情에 감감하다고 쳐도, 黨의 最高位級 幹部들, 軍의 將領들, 高級 情報官, 外交官, 記者, 인텔리, 外國訪問의 機會를 가진 政府要員, 學者, 技術者등 北韓의 엘리트層은 世界情勢의 歷史的 變動과 北韓內部的 矛盾에 대해 상당한 感覺과 知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들의 批判精神을 우려하기 때문에 金日成一派는 92年 12月 부랴부랴 「朝鮮知識人大會」를 열고 「反革命的 思想毒素」가 浸濕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새삼 소란을 피웠다.

어느 時期에 나타날 北韓의 改革勢力은 東歐와 蘇聯에서 처럼 이들 속에서 나올 것이다. 지금은 누가 누구인지를 가릴 길이 없으나

南北對話를 통하여 이들과 接觸하고 論爭하고 合意하면서 形式的이  
나마 유대를 가져야 한다. 더우기 南北關係의 完全한 斷切은 北韓  
의 大衆을 南韓과 世界로 부터 孤立無援의 狀態로 몰아넣게 될 것  
이다.

여기서 南韓이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것은 자체의 基本的 原則,  
즉 自由民主主義의 理念과 制度에 대한 信念이다. 이밖에 당면한  
政策上의 原則으로는 南北 相互核査察의 實施와 北韓으로 하여금  
化學武器 禁止協定에 조인하고 履行케 하는 일이며 南北離散家族의  
相逢·訪問, 再結合을 實現시키는 일이다. 民族의 生死와 文明社會  
의 人道主義 通例와 관련되는 以上 政策上의 原則은 讓步할 수 없  
는 것이다.

그리고 大韓民國의 安定과 관련되어 있는 駐韓美軍의 撤收는 國  
際 情勢의 추이에 따라 段階的으로 解決하여야 할 課題이며 國家保  
安法은 北韓의 壓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南韓의 必要에 따라 合理的  
으로 改正하여야 할 問題이다.

北韓은 계속 자기들의 「革命的 原則」, 「民族自主의 原則」을 固守  
하려 할것은 물론이다. 南韓에서 金日成의 統一路線을 追從하는 政  
權이 들어서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한 部分的인 讓步만으로는 그들  
의 基本立場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北韓이 그들의 革命路線을 完강히 固執한다고 하여 悲觀할 것도  
없으며 戰術的인 伸縮性을 보고 기뻐할 바도 아니다. 絶대로 變化

하지 않는 事態와 수시로 便宜에 따라 바뀌는 戰術 또는 그때 그때 輿論의 조작을 위해 發說하는 金日成의 臨機應變의 言辭에 一喜一悲하는 態度는 南北對坐에서 취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數年前 김영남은 英國에서 「맑스主義는 變遷하는 이 時代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포기했다」고 말한바 있다. 또 改正된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에서는 「맑스-레닌主義」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나 하는 文句가 削除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北韓에 本質的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듯이 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中대한 錯覺이다. 그들의 黨文獻에서는 그런 文句가 그대로 또는 약간 表現을 바꾸어 계속 사용되고 있다.

北韓의 宣傳員들은 南韓內의 大衆을 조종하기 위하여 또는 世界 輿論을 자기側으로 好轉시키기 위하여 言論을 造作하는 技術을 터득한지 오래다. 이에 眩惑되거나 또는 그런 말 장난에서 어떤 變化를 찾아보려 해서는 안된다.

金日成이 強調하는 「祖國統一의 3大原則」 즉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이란 用語의 解釋은 世界の 普遍的 解釋과는 다르다. 그밖에도 「民主化」, 「自由」, 「愛國」, 「親善」등의 概念도 우리와는 意味를 달리한다. 이 모든 말들은 철저히 黨략화,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으며 그 內容은 철저히 策略的이다.

그들이 무슨 말들을 어떻게 하던 南韓은 그 眞意를 明確히 把握



하고 스스로의 原則을 一貫하게 수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國民大衆이 北韓의 宣傳에 眩惑되지 않도록, 歷史의 僞造와 現代의 迷信인 個人崇拜와 內容이 空虛한 理論的 遊戲와 時代錯誤的인 스탈린主義的 革命 修辭로 꾸며진 主體思想을 철저히 批判하고 그 批判을 널리 擴散시켜야 한다.

南韓이 특히 自我批判할 것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式의 感傷主義, 對北 經濟進出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한 欲望, 頂上會談의 애타는 提議, 機能主義的 接近方法에 대한 지나친 期待 등이다.

이런 것들은 北韓에서 볼때는 일종의 無思想的, 無原則的 態度로서 蔑視하려 할 것이다. 그들이 진지하게 相對하는 者는 밋고 「反動的」이지만 자기의 原則的 立場을 의연하게 견지하는 政治勢力이다. 그들은 強健하고 信念이 確固하며 立場이 뚜렷한 자와 만나 어떤 妥協이 不可避하다고 感知할 때 비로소 妥協에 나설 것이다.

北韓은 南韓側의 威脅이나 壓力에 屈從하지 않는 동시에 宥和, 회유, 親和政策, 民族的 呼訴 등에 의하여 감명을 받거나 넘어 가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南北關係는 많은 論爭과 決裂과 續開가 되풀이되는 協商 過程을 통하여 여러 段階를 거치면서 점차로 定着될 수 밖에 없다.

北韓은 從來와 같이 南韓政治權內의 野黨 또는 在野勢力을 이용

하여 國論을 分裂시킴으로써 자신의 協成陣地를 強化하려 들것은 明白하다.

그러므로 野黨은 그들의 政略에 끌려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南北關係와 統一問題가 더이상 政爭의 手段으로 되지 않도록 政治人을 비롯하여 國民一般은 성숙한 思考와 大局的 視野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對北協商의 當局者나 政權은 協商의 成果에 초조해 하거나 個人的 功績을 성급하게 追求해서는 안된다. 그러다가는 될 일도 되지 않는다. 忍耐力을 가지고 長期的인 態勢를 가다듬으면서 感情에 사로잡히지 말고 理智的으로 問題를 풀어 나간다는 態度가 必要하다. 그것이 南北關係를 正常化하는데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 있다.

金日成一派는 極限的인 政治攻勢로 南韓에다 心理的 萎縮을 가하고 不利할 때는 對話를 中斷한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對內外的으로 헤어내기 어려운 狀況에 處해 있는 것은 바로 北韓이다.

南韓側은 戰術的으로는 절대로 北韓을 輕視하면 안되고 戰略的으로는 歷史는 우리便 이라는 樂觀主義에서 주어진 任務를 自信있게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